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학교를 꿈꾸며’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장애인권교육프로그램



첨단고등학교 소성현

# ◆ 장애인권교육프로그램 개요 ◆

##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의 존재는 독립적이고, 조용하며 외딴 섬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으러 교실에 가면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을 이질적인 존재로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외딴 섬, 그리고 이질적인 존재감이라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비장애학생들을 특수학급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동아리를 개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특수학급은 더 이상 외딴 섬이라는 이미지가 아닐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직접 작성하고 활용했던 지도안, 활동지, 계획서 등을 모아서 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로 교육현장에 적용하면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을 위한 자료개발에 항상 노력해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 ▪ 제1부 장애인권교육을 위한 지도안 및 수업자료

제1부에서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동아리 수업시간에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수업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 유니버설 디자인, 영상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장애체험활동, 장애인권 홍보작품 제작, 신문 기사를 통한 장애인권 교육 등 학생들이 장애인권을 이해하고 장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통합동아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과 관련 학습자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 제2부 장애인권신장을 위한 활동 및 행사운영 계획

제2부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통합동아리 학생들이 장애인권신장을 위한 활동 및 각종 행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획서 및 참고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장애인권통합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직접 작성하였던 계획서 및 참고자료를 수록하여 다양한 장애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통합동아리 교육활동 외에도 특수학급에서 장애인권 신장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교육,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 규칙 개정자료 등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C CONTENTS



## 제1부 장애인권교육을 위한 지도안 및 수업자료

1. 차이와 차별	4
2.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12
3. 영상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낮잠’	21
4. 영상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세 번째 소원’	30
5. 영상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대륙횡단’	38
6.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	43
7. 점자열쇠고리 만들기	49
8.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모의재판	54
9. 장애인권 UCC 제작 활동	67
10. 장애인권홍보작품 제작활동-표어,포스터	71
11. 인권 머그컵 만들기	76
12. 신문기사를 통한 장애인권교육	81

## 제2부 장애인권신장을 위한 활동 및 행사 운영 계획

1. 장애인권통합동아리 활동 계획	93
2.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 계획	96
3. 또래도우미(장애학생도우미)제도 운영 계획	103
4.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계획	108
5.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계획	117
6.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연극 공연 계획	121
7.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인권여행 실시 계획	127
8. 장애인권교육 ‘장애인명사초청강의’ 실시 계획	133
9.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계획	137
10.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자료	145
11. 인권 존중을 위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계획	149
12. 지역사회 장애인권 캠페인 실시 계획	151
13. 장애학생들이 펼치는 연극 관람 및 봉사활동 실시 계획	153
14.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제강제동원 현장답사 계획	157

# 제 1 부

## - 장애인권교육을 위한 지도안 및 수업자료 -

1. 차이와 차별
2.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3. 영상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낮잠'
4. 영상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세 번째 소원'
5. 영상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대륙횡단'
6.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
7. 점자열쇠고리 만들기
8.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모의재판
9. 장애인권 UCC 제작 활동
10. 장애인권홍보작품 제작활동-표어,포스터
11. 인권 머그컵 만들기
12. 신문기사를 통한 장애인권교육



# 차이와 차별



## 학습목표

- ◆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개념 구분을 통해 차별을 확인하고 평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 ◆ 장애 학생의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차별 해소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 ▶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지, PPT 자료
- ▶ 주요내용
  - 다르다와 틀리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 보고, 차별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 학교 안에서의 차별 사례를 생각해 보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본다.
  - 자신의 겪었던 차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생각해 본다.
  - 토론학습을 통한 장애인 권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고 발표해 본다.
- ▶ 유의사항
  - 어떠한 것이 차별이고 차이인지 구분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차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 유형별로 각 상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고 활동지에 작성하면서 정당성에 대해 평가한다.
  - 모둠 활동 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안에서의 차별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지도안

지도대상	중·고등학교 통합학급(3월 25일)
본시주제	<b>차이와 차별에 관한 토론활동</b>
학습목표	가.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개념 구분을 통하여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말할 수 있다. 나. 장애 학생의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차별 해소를 위한 방법을 말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와 차별의 사전적 개념 찾아보기</li> </ul> </li> </ul>	5'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 :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읽기</li> <li>- 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알아보기</li> </ul> </li> <li>◎ 활동 2 : 차별 경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별 차별 사례 발표하기</li> <li>- 차별 해소를 위한 마음가짐 발표하기</li> </ul> </li> <li>◎ 활동 3 : '동정이 아닌 권리를 원해요' 읽고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정이 아닌, 권리를 원해요' 글 읽기</li> <li>- 장애인 차별 관련 학습지 작성하기</li> </ul> </li> </ul>	40'	▶활동지 1,2,3,4 ▶PPT자료 ▶필기도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읽고 헌법으로 금지하는 차별에 대하여 알고 차별방지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토론 활동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이야기해주고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자신의 활동결과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 다음 헌법 조항을 먼저 읽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차별은 무엇일까?

○ 다음의 4가지 경우 중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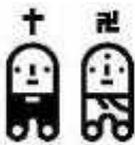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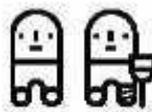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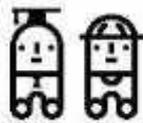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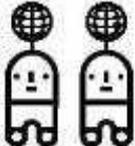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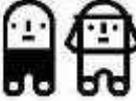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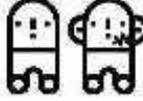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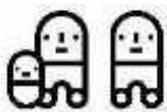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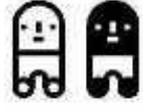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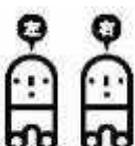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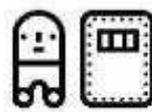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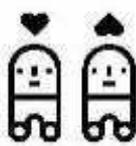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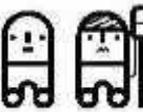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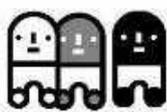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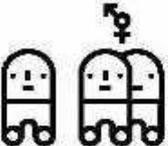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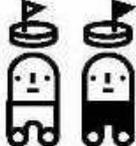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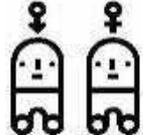
첫 번째 - 두 대상이 서로 같은 것을 서로 같게 대우하는 경우

두 번째 -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세 번째 -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경우

네 번째 - 두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 모둠별로 다음 순서로 활동해 보자.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차별 사유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힘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병력
 피부색	 혼인여부	 출신지역	 성별

종수보다 한 살 어린 동생 종석이는 지적장애를 가졌습니다. 종석이는 조용한 성격이라서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급해서인지 심하게 더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석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자연히 종석이는 말수가 적은 아이가 되어갑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종수는 종석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표현에 서툰 종석이가 어디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등하교길마다 종석이와 함께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수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종수는 유종석 형이라서 불쌍하지 않냐?”

“그러게 말이야. 유종수랑 유종석 모두 불쌍해.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우연히 듣게 된 말이지만, 종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 자리를 부리나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수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동생과 자기를 도와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이 고맙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은근히 화가 나고 나중에는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바라보는 달갑지 않은 시선을 느끼게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불쾌한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석아, 형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자.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게, 기분 나쁜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응 ... 형 ... 난 형이랑 ... 같이 ... 하는 거면 ... 다 좋아.” 종석이도 좋다고 합니다.

우선 종수는 종석이와 함께 읽을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정은 싫다>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종수는 왜 친구들의 이야기가 불쾌했는지 바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동정’ 때문이었습니다. 동정을 받는 것이 종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책은 미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를 담은 것이었는데, 종수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은 부분만 종석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종석아 미국 장애인들은 ‘제이 루이 쇼’ 같은 장애인을 위한 모금 방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해마다 벌인대. 장애인들이 ‘동정심에 저항하라(Piss on Pity)’ 라는 팻말을 들고 모금방송을 비난한다는 거야. 그럼 그런 모습을 본 비장애인들은 당황해 한 대. 자기들을 위해서 힘들게 모금을 하는데 왜 그러냐고.”

“형 ... 나 ...는...그...사...람...들이...왜...그러...는지 알 ... 거 ... 같아.”

“형도 알 거 같아. 동정 받는 게 싫은 거지. 사실 장애는 그저 다른 차이일 뿐인데, 말로만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동적인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리잖아.”

“응 ... 나 ... 바보 ... 아...나야...나 ...형이 ... 말...하는 것도 ... 다 알아.”

“우리나라에도 모금 방송을 할 때 보면,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 어린이가 등장하고, 그런 아이의 고통이 구구절절이 방송되고 부모님이 눈물 흘리고, 막 이래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다음에 모금을 하잖아? 우리 집은 그런 방송이 나오면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방송 나오는 거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 동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나 봐.”

그 책에는 이런 글도 소개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변호사 티모시 쿡이 죽자 추도식에 참석한 친구들은 “고인은 전혀 장애인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고인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장애가 가장 적은 사람이었다.”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마치 장애가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마치 흑인에게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덜 까말소.”라고 말하는 것만큼 장애인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종수는 그 글에 공감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조건의 안내를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국가기관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하는 데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보조건 때문이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보조건을 밖에 두고 들어오라는 것은 눈을 문 밖에 빼놓고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런 몸으로 왜 밖에 나왔느냐는 따가운 눈총과 핀잔만 들었다는 친구도 있어.”

“우와...디...게...싫...다.”

“그렇지?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거나 성가시게 보거나 이거 밖에 없나 봐.”

“형. 형도 ... 내...가...성...가...셔?”

종수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종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종석이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지, 그래서 종석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종석아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동정만 하지 말고 권리를 되찾는데 힘을 합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자.”

종석이도 형의 마음을 알겠다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장애인이 된 가수 강원래 씨는 “장애인은 계단이나 언덕 때문에 외출을 피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창피한 거고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라며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종수와 종석이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국가기관에서 만든 공익광고였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빠르게 움직이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로 붐비고, 몇 안 되는 비장애인은 휠체어를 피해 조심스럽게 걷는다. 은행에 들어간 비장애인이 창구 직원에게 계좌를 열고 싶다고 하자 직원이 수화로 답한다. 공중전화 부스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하기 편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비장애인은 어정쩡한 자세로 허리를 숙여 전화를 건다. 도서관에 있는 책은 모두 점자로 되어 있어 점자를 모르면 읽을 수 없다.’

“광고 마지막 자막이 ‘당신에게 맞게 설계되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은 살기 힘들 것이다’라는 글이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장애인에게 맞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장애인이 불편하다는 뜻인 거지?”

종석이는 형이 말하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의젓해서 종수는 기분이 좋습니다.

“장애를 가져도 불편하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생기니까 휠체어 장애인도 거리에 나오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되었어. 장애인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야. 동정이 아니라, 그치?”

“응...”

“저상버스가 생기면 장애인만 좋은 건 아니지. 임산부, 노인들처럼 교통 약자들에게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정책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야.”

“응. 나...도...동...정..이...싫어...”

“그래,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한 거야. 그건 우리가 누릴 권리지. 종석아 힘이 난다. 그치?”

“응...형.”

종수와 종석이 형제는 친구들에게 불편했던 감정조차 이제 이야기할 힘이 생겼습니다.

<출처 : 청소년 인권+>



<출처 : 프랑스 전력청 광고>

활동자료  
4

동정이 아닌, 권리를 원해요-생각해보기

1. 종수는 불쌍해서 도와주겠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이유는 무엇 일까요?
2. 티모시 쿡의 추도식에서 ‘전혀 장애인 같지 않았다’는 추도사는 칭찬의 말이었을까요? 장애인은 무능한 존재라는 전제가 깔린 비하의 말인가요?
3. 장애인 입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불리는 이름 등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4. 장애와 비장애는 단지 차이일 뿐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5.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인에게 맞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비장애인에게 맞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적 약자들(이주민,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 어린이, 노인, 등)살기 불편한 세상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불편할까를 적어 봅시다.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 학습목표

- ◆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인권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 ◆ 장애 인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장애인과 자신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그릴 수 있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 ▶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지, PPT 자료
- ▶ 주요내용
  -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났던 경험과 이유를 생각해 보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생각한다.
  - 장애인 인권 관련 공익 포스터를 본 후 토론 활동을 통하여 장애 인권을 생각해 본 후 장애차별 홍보물을 만들어 본다.
  -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갖는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안해 본다.
- ▶ 유의사항
  -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장애인의 학교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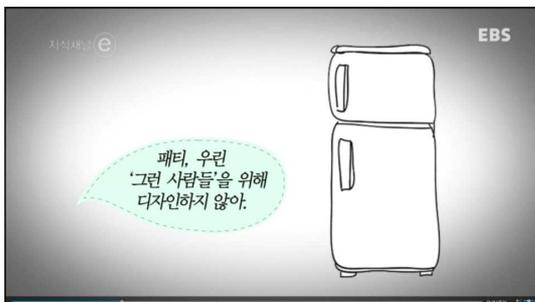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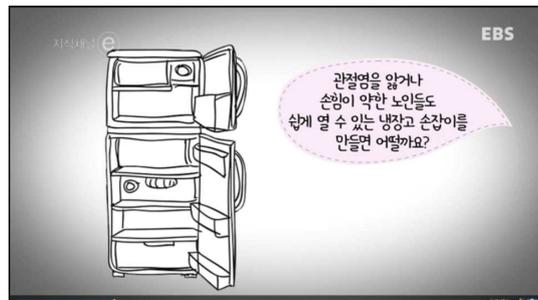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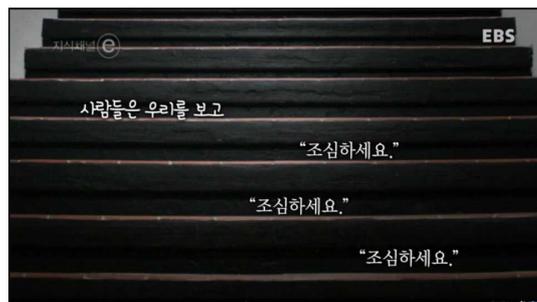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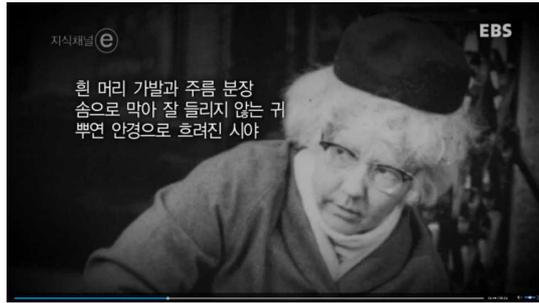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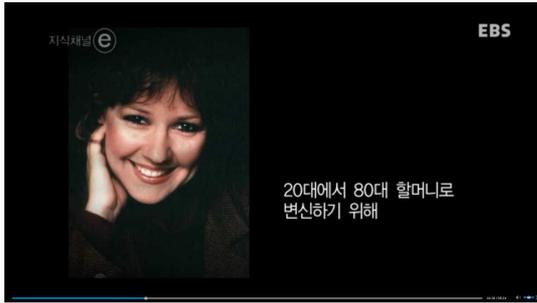
## 학습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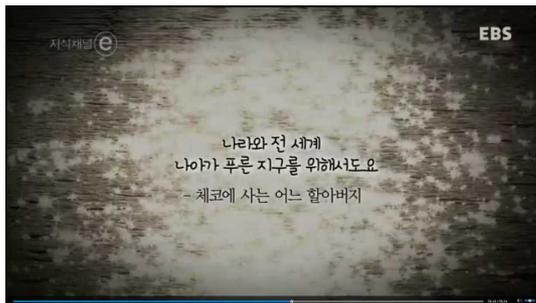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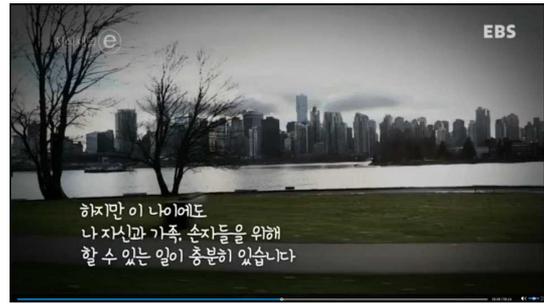
지도대상	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본시주제	장애 인권에 대하여
학습목표	장애 인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장애인과 자신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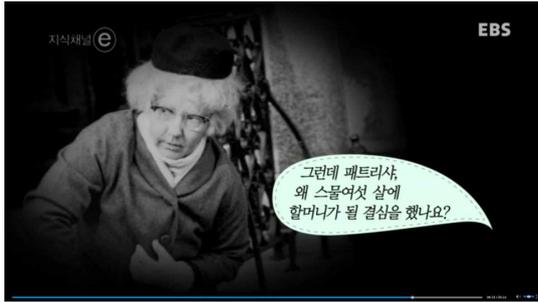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했던 경험 이야기하기</li> <li>-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줬던 경험 이야기해보기</li> </ul>	5'	▷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p>◎ 활동 1 : 유니버설 디자인 생각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 디자인이란?</li> <li>- 유니버설 디자인 영상자료 살펴보기 EBS 지식채널e '할머니와 냉장고 시청하기'</li> </ul> <p>◎ 활동 2 : 유니버설 디자인 생각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하기</li> <li>-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하기</li> </ul>	40'	▶ '할머니와 냉장고' 영상자료  ▶ 연필, 도화지, 지우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를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생각해 본다.</li> <li>· 자신이 설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 자신이 설계한 디자인의 의미를 발표하도록 한다.

아래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자료를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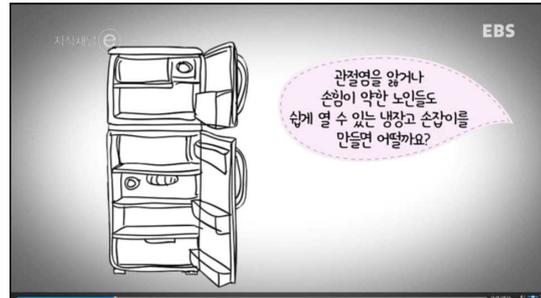








<EBS 지식채널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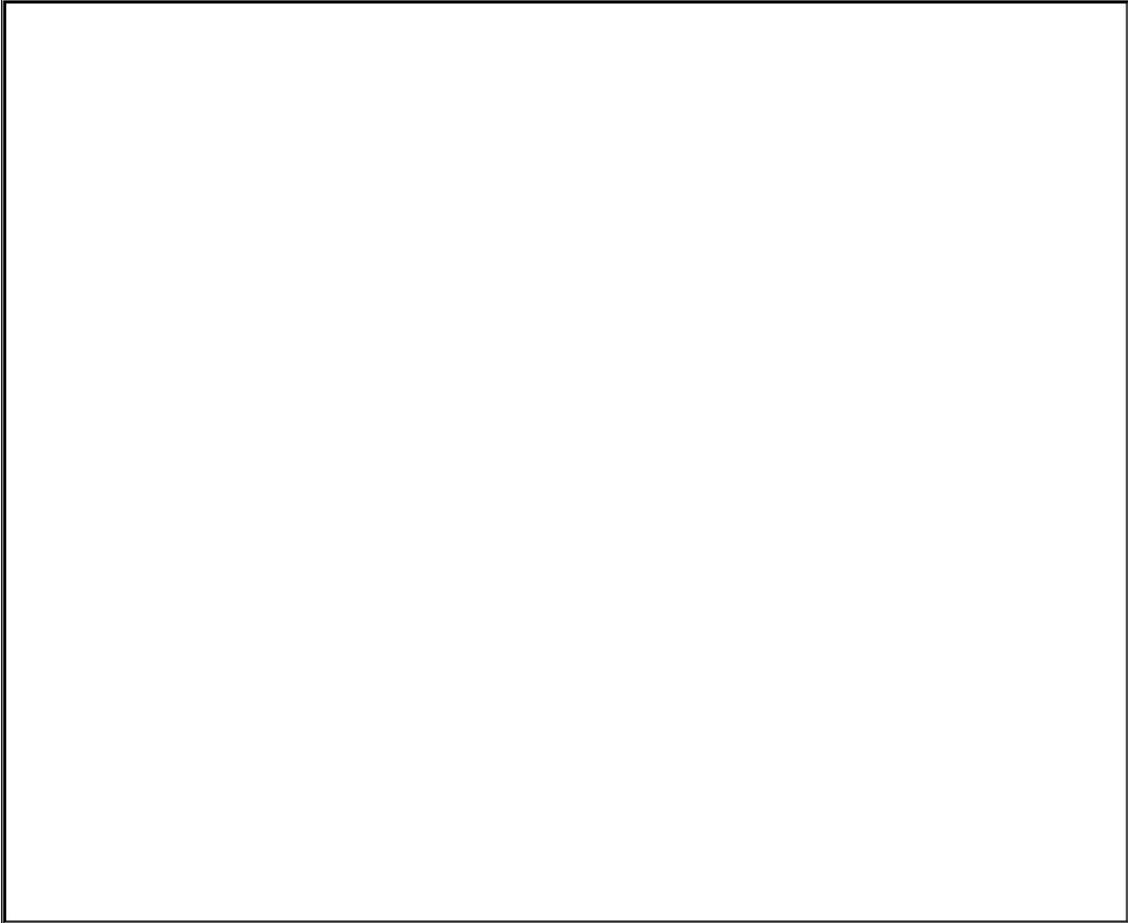
1.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2.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디자인일까요?
3.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봅시다.
4.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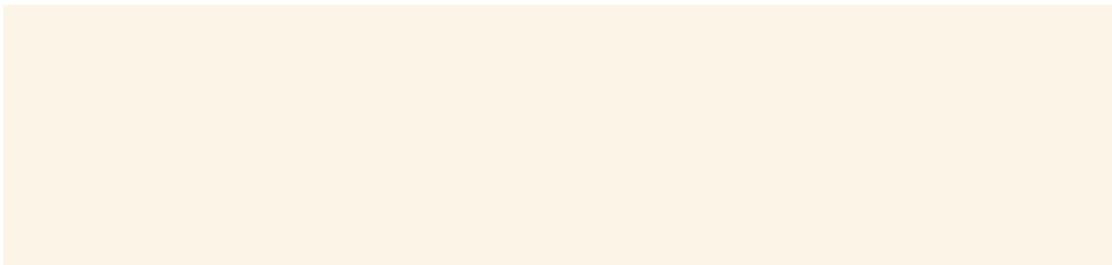
##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하기

**<장애인이거나 임산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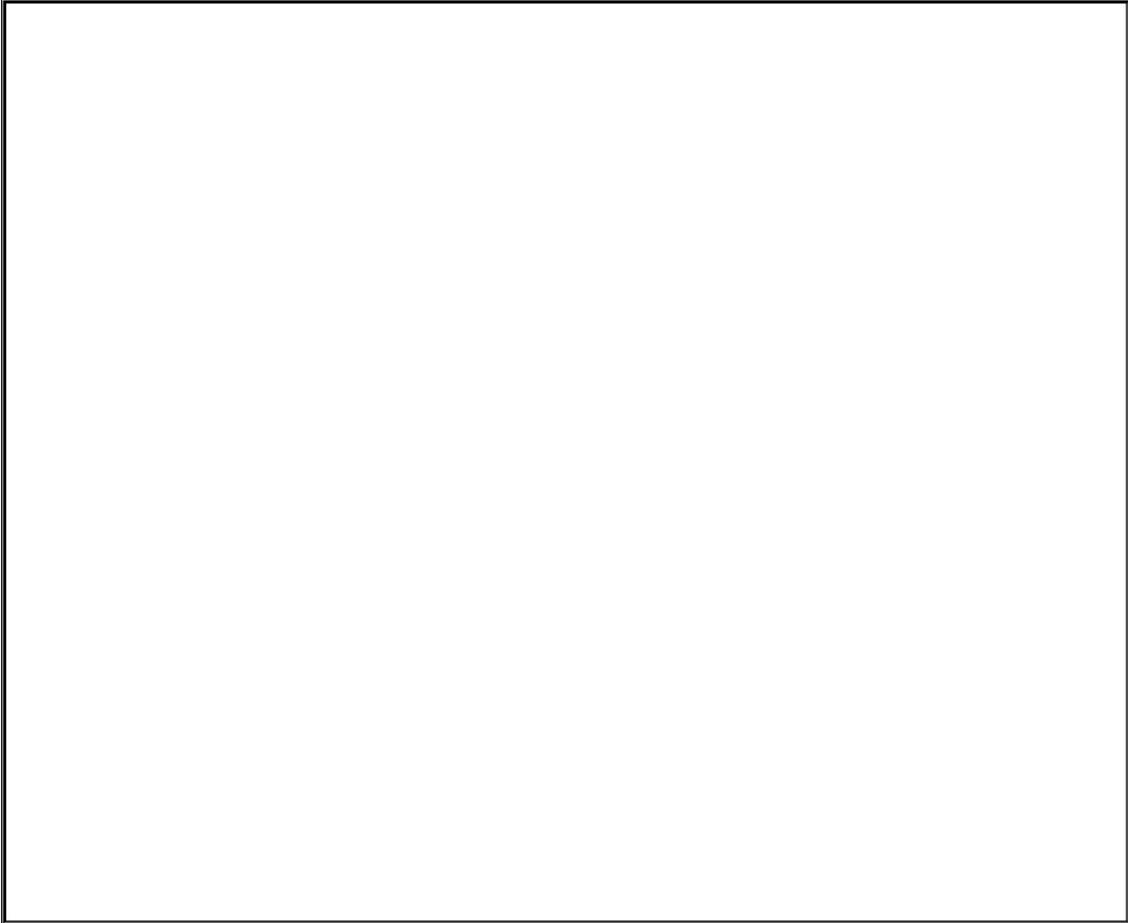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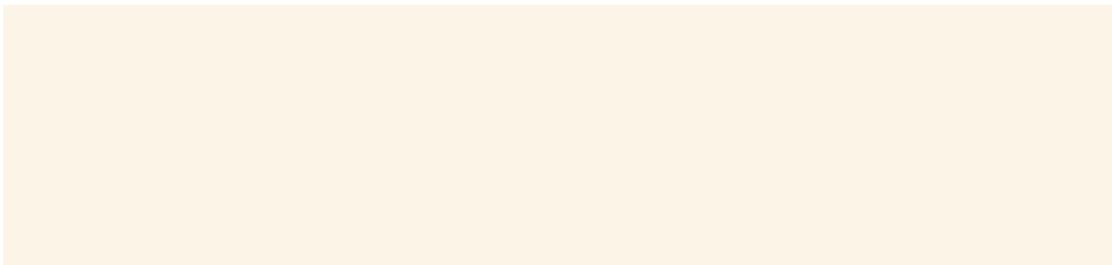
##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하기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 설명>**



# 영상자료를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 ‘낮잠’

감독 유진희  
상영시간 13분



## 줄거리

바로와 아빠가 한 여름날 평화롭고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 속에서 수영장에 간 바로는 아빠와 물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옆에서 수영을 하던 아이들은 바로가 손가락과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자 바로를 피해 물 밖으로 나갑니다. 휠체어를 탄 바로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버스는 태워주지 않습니다.

‘꽃밭에서 꽃들이’ 노래하는 유치원에 가고 싶지만, 가는 데마다 입학을 거절을 당합니다. 마침내 바로를 반겨주는 유치원을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휠체어가 오르기에 턱없이 높은 계단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빠는 집을 팔아 바로의 의족을 사줍니다. 의족을 신고 산책을 하던 바로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강아지는 바로처럼 장애를 가졌군요. 바로는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 아빠와 함께 낮잠을 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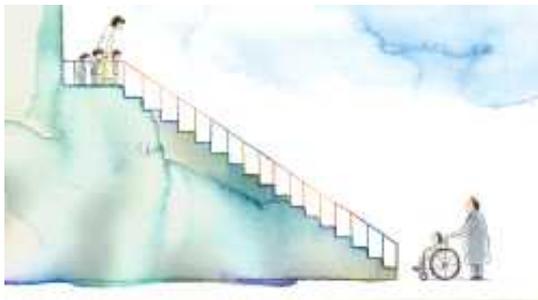
## 내용이해

‘낮잠’ 자는 부녀의 모습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보이는 만큼이나 부녀가 부딪혀야 하는 현실의 벽은 높고 험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늘상 겪는 차별적 현실과 평온한 ‘낮잠’ 자는 모습을 통해 장애인이라고 어둡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

인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낮잠을 통해 고단한 일상에 휴식을 주며,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니다.

장애인이어서 차별 받던 아이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와 돌보는 모습은 비주체적이고 나약한 모습이 아닌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주체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엄마가 아이와 남편에게 선풍기 바람을 쐬어 주며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의족 등 비싼 장애인 보장구 마련 때문에 집을 판 후, 작지만 마당이 있는 집을 구했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희망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 감독의 말

작품의 출발은 ‘김세진’이란 남자아이이며 세진 어머니의 수기는 작품의 뼈대가 되었다. 처음 이 아이를 접한 건 TV를 통해서였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무작정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세진어머니와 세진이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미 이분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이가 가진 장애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며 가족단위로 여행과 모임을 자주 갖고 있었기에 만남은 수월했다. 몇 번의 인터뷰와 만남이 있었는데 특히 세진이네에서 하룻밤 묵었던 때가 기억난다. 밤새 어머니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작품주제를 떠나 신변 잡기 농담과 더불어 인생, 사랑, 귀신, 만화 이야기까지 잡다한 수다들을 늘어놓고 모처럼 여유를 즐겼던 것 같다. 그 때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장애’들을 삶의 본질인 낙관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작품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 참고자료

\*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가 2백15만명이며, 장애를 갖게 된 원인으로는 태어난 후 질병(52.4%)을 앓거나 사고(36.4%)를 당하는 등 후천적 요인이 89%나 됐다. 장애인의 35%는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5명 중 1명만이 이 장치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장애극복을 위해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도 60%가량이 경제적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절반 이상(55.2%)이 외출 등 집 밖에서의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불편을 겪는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35.6%), 외출시 동반자 부재(27.8%), 주위 사람들의 시선(14%) 등이었다.

경향신문:2006.2.14.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올 3월까지 접수된 진정 내용 중 차별에 관한 건수가 2199건에 달한다. 그 중 장애인 차별이 두 번째로 많고 진정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엔 121건에 달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당한 경우(50.8%)가 가장 많았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도 손님 대접을 안 한다는 얘기니, 돈을 벌려고 일하는 직장에서의 차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인권위의 주요 권고안 중엔 장애인의 승진 불이익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의 개선 등 장애인차별 시정권고안이 많다.

세계일보 칼럼 2006.4.20.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의 설치율이 평균 22.5%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1.6%, 초등학교 51.4%, 중학교 29.2%, 고등학교 14.3%에만 특수학급이 있다. 221개 대학과 155개 전문대학 가운데 특수학교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학교는 19.4%인 73개에 불과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수가 5,000명에 이르고, 고등학교 과정 졸업 이후 장애인의 미진학·미취업률도 36.1%로 졸업 이후 대부분 가정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 2006.9.14.



## 학습지도안

지도대상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4월 1일)
본시주제	별별이야기 ‘낮잠’ 감상하기
학습목표	‘낮잠’ 을 시청한 후 차별화된 장애인 교육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권 사진 자료 보여주기</li> <li>-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 알아보기</li> </ul>	5 ‘	▶장애인 이동권 사진 자료
전개	<p>◎ 활동 1 : ‘낮잠’ 시청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하는 인물과 내용을 생각하며 시청하기</li> </ul> <p>◎ 활동 2 : ‘낮잠’ 을 보고 난 후 이야기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후 느낌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기</li> <li>- 내용에 대한 질문 대답하기</li> <li>- 각 상황에서(수영장, 정류장, 유치원, 산책길에서) 난 어 떻게 행동했을까 의견 나누기</li> </ul> <p>◎ 활동 3 : ‘낮잠’ 을 보고 한걸음 더 생각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기분 말해보기</li> <li>- 장애인이 입학했을 때 필요한 시설 알아보기</li> <li>-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의견 나누어 보기</li> </ul>	40 ‘	▶별별이야기 영상자료 ▷영상시청을 위해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양한 토론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교육권과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li> <li>· 장애인의 교육현실과 개선점을 이야기 해본다.</li> <li>·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	

## ‘낮잠’을 보고 이야기 해보기

학년    반    이름

### 1. 수영장에서

- (1)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어린이들이 바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2) 엄마들은 바로를 보고 어떻게 하였나요?

### 2. 정류장에서

- (1) 버스와 택시를 기다리던 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2) 여러분이 바로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 3. 유치원에서

- (1) 바로의 유치원 입학을 거절한 어른들은 왜 그랬을까요?
  
- (2) 바로가 자신을 반겨주는 유치원에 갈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 4. 의족과 강아지

- (1) 아빠가 집을 팔아 바로에게 사 준 것은 무엇인가요?
  
- (2) 의족을 신고 산책을 하던 바로는 길에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왜 버려졌을까요?
  
- (3) 바로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했나요?

학년 반 이름

1. 여러분은 지금까지 집, 학교, 또는 주변에서 억울한 차별을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차별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2. 바로가 받고 있는 부당한 차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다음 주제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의견을 나눠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어 봅시다.
  - (1) 수영장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엄마들에게 편지 쓰기
  - (2) 버스기사과 택시 기사에게 편지 쓰기
  - (3) 바로와 같은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나 택시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 (4) 바로의 입학을 거절한 유치원 어른들에게 편지 쓰기
  - (5)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을까요?
  - (6) 바로에게 편지 쓰기

학년   반   이름

-----에게

학년    반    이름

1. 바로와 아빠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잠’은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버스와 택시가 휠체어에 탄 바로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하려고 할 때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생각나는 대로 짚어봅시다.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의논해 봅시다.
3. 아이의 입학을 받아주지 않는 유치원과 받아주지만 계단이 높아 오를 수 없는 유치원,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장애인의 교육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 우리 학교에 바로가 입학한다면 어떤 시설과 도움이 필요할까요?
5. 강아지는 왜 버려졌을까요? 바로가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와서 함께 낮잠을 자는 행동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6. 바로가 버려진 강아지를 주워 와서 함께 낮잠을 자는 것과 달리, 다른 생물이거나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도 무심코 지나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비슷한 경우를 살펴 우리 사회에서 살펴야 할 것들을 찾아봅시다.

읽기 자료(세상을 바꾸는 시간-김세진)

학년 반 이름

“세진아 걷는 것?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연사: 김세진 로봇다리 수영선수  
강연주제: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겠습니다.

<http://youtu.be/tDcmrxRfZzc>

여러분들은 자신이, 자신의 꿈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족을 드러내는 게 어색해서 늘 긴 바지만 입는 세진이에게 “가린다고 장애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양정숙씨.

“너에게 장애가 있지만 장점도 있다. 그 장점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라며 강하고 현명하게 키운 덕분에 세진이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갈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출처: <http://blog.naver.com/boontcompany/150183672099>

# 영상자료를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 ‘세 번째 소원’

감독 안동희, 류정우

상영시간 13분



## 줄거리

“앞이 보이게 해 주세요.

요정 맞아요? 소원이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시각장애인인 명선에게 ‘소원실행위원회’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나타난다. 요정은 어서 소원을 이뤄주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 욕심으로 명선에게 빨리 소원을 얘기하라고 다그치지만, 명선은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 외 다른 소원은 필요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명선의 하루를 동행하게 되는 요정. 요정은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명선이 답답하기만 한데,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명선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영겁결에 두 가지 소원까지 날아가 버리고, 이제 마지막 소원 하나만 남은 상황, 명선은 무슨 소원을 부탁할지 고민하며 밝은 길을 걸어간다.





## 내용이해

아침에 울리는 휴대폰 알람소리는 늘 반갑지 않습니다. 겨우 잠에서 깨어나는 명선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늘 있는 일인데 오늘의 명선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5살 때 빌었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요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정이 갑자기 명선의 이름을 불러 깜짝 놀란 명선은 아직 잠도 덜 깨서 얼떨떨한 가운데 ‘누구나’고 묻습니다. 요정은 ‘보면 모르냐’고 되물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명선에게는 곤란한 질문입니다. 비장애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시설, 언어 등이 장애인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아무 의심 없이 익숙했던 것만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명선은 당연히 앞이 보이게 해 달라고 소원을 말하지만 요정은 일단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계약서를 내줍니다. 눈으로 읽을 수 없는 명선이 요정에게 대신 읽어주거나 점자로 쓰인 계약서를 요구하지만 요정은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냥 서명하라며 관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명선이 서명할 계약서를 더듬고 서명을 하는 동안 명선의 방이 보여집니다. 인형, 책, 컴퓨터, 화장품, 벽에 붙여둔 메모지... 방 모습이 어디서 본 듯 익숙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을 뿐 명선도 또래의 어느 여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이 보이게 해 달라는 소원은 불가능하니 다른 소원을 빌라는 요정의 말에 섰던 명선은 출근 준비를 합니다. 흰 지팡이가 어둠속에서 노란 황금빛 길을 만듭니다. 명선은 볼 수 없지만 노란색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럭은 명선에게는 황금보다도 빛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유도 블럭은 끊어져 있거나 공사 때문에 혹은 짐 등으로 가로 막혀 있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황금색 유도 블럭 따라 천천히 걷는 명선의 발걸음이 답답했던 요정은 지름길로 가자며 다짜고짜 명선의 팔을 잡아줍니다. 그 바람에 지하철역으로 가는 명선의 머릿속 지도가 우르르 무너집니다. 요정이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었겠지만 타박타박 안정된 걸음걸이로 가던 명선은 허둥대게 됩니다. 이윽고 명선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요정의 팔을 잡고 걸겠다고 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명선이 까다롭게 군다고만 생각했던 요정이었지만 명선의 말대로 하자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졌음을 느낍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공익근무요원도 요정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일방적으로 행해졌기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원하는 역에 도착한 명선... 요정은 지름길이라며 유도 블럭도 없는 시장길로 명선을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는 명선을 위해 시장풍경을 생생하게 설명해주던 요정이 돌연 명선을 혼자 내버려둔 채 대폭할인행사를 하는 옷매장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유도블럭도 없는 혼잡한 시장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명선이 한 짐꾼과 부딪힙니다.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라고 소리치는 짐꾼의 평범한 말이 볼 수 없는 명선에게는 어느 때보다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당황한 명선은 이곳

저곳에 부딪히며 시장 상인들의 눈총과 원성을 삼킨다. 볼 수 없기에 타인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수근 대는 작은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따갑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작품

<여섯 개의 시선> 중 ‘대륙횡단’[여균동 감독]

<별별이야기> 중 ‘낮잠’[유진희 감독]

<다섯 개의 시선> 중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박경희 감독]



## 학습지도안

지도 대상	중 · 고 통합학급
본시 주제	여섯 빛깔 무지개 ‘세 번째 소원’ 감상하기
학습 목표	‘세 번째 소원’을 시청한 후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p>다음 “다를 뿐 이상하지 않아요.”만화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봅시다.</p>	5 ‘	▶학생제작 만화자료
전개	<p>◎ 활동 1 : ‘세 번째 소원’ 시청</p> <p>- 등장하는 인물과 내용을 생각하며 시청하기</p> <p>◎ 활동 2 : ‘세 번째 소원’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p> <p>- 줄거리를 생각하며 학습지1의 문제 답을 나누기</p> <p>- 명선의 방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p> <p>- 명선의 두 번째 소원은?</p> <p>- 명선과 함께 다니던 요정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p> <p>◎ 활동 3 : ‘세 번째 소원’을 보고 한 걸음 더</p> <p>- ‘세 번째 소원’ 속 내용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기</p> <p>- 학습지 2의 문제 답을 나누기</p>	40 ‘	▶여섯빛깔무지개 영상자료, 활동지1 ▷영상시청을 위해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활동지2 ▷다양한 토론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리	<p>· 시각장애인에게 배려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p> <p>· 장애인을 배려할 때, 비장애인 위주의 배려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본다.</p> <p>·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p>	5 ‘	

## ‘세 번째 소원’을 보고 이야기 해보기

학년 반 이름

1. 처음 요정이 명선 앞에 나타났을 때 왜 감독은 명선의 방을 찬찬히 보여줬을까요?
2. 요정이 빠른 길을 알려주겠다고 다짜고짜 명선의 팔을 잡고 가자 명선은 어떻게 했나요? 명선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명선의 말대로 하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3. 공익요원은 명선이 지하철을 타려는 것도 모르고 명선을 출구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공익요원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4. 명선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명선이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5. 명선과 함께 다니는 사이 요정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6. 명선은 세 번째 소원으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명선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지 이야기해볼까요?

학년 반 이름

1. 명선이가 다짜고짜 지름길로 데리고 간다며 요정의 손에 끌려갔을 때 명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 여러분이 만일 요정이었다면 명선이를 어떻게 도와줬을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명선이라면 상인과 부딪혀 넘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 만일 여러분이 명선이와 부딪힌 상인이라면 명선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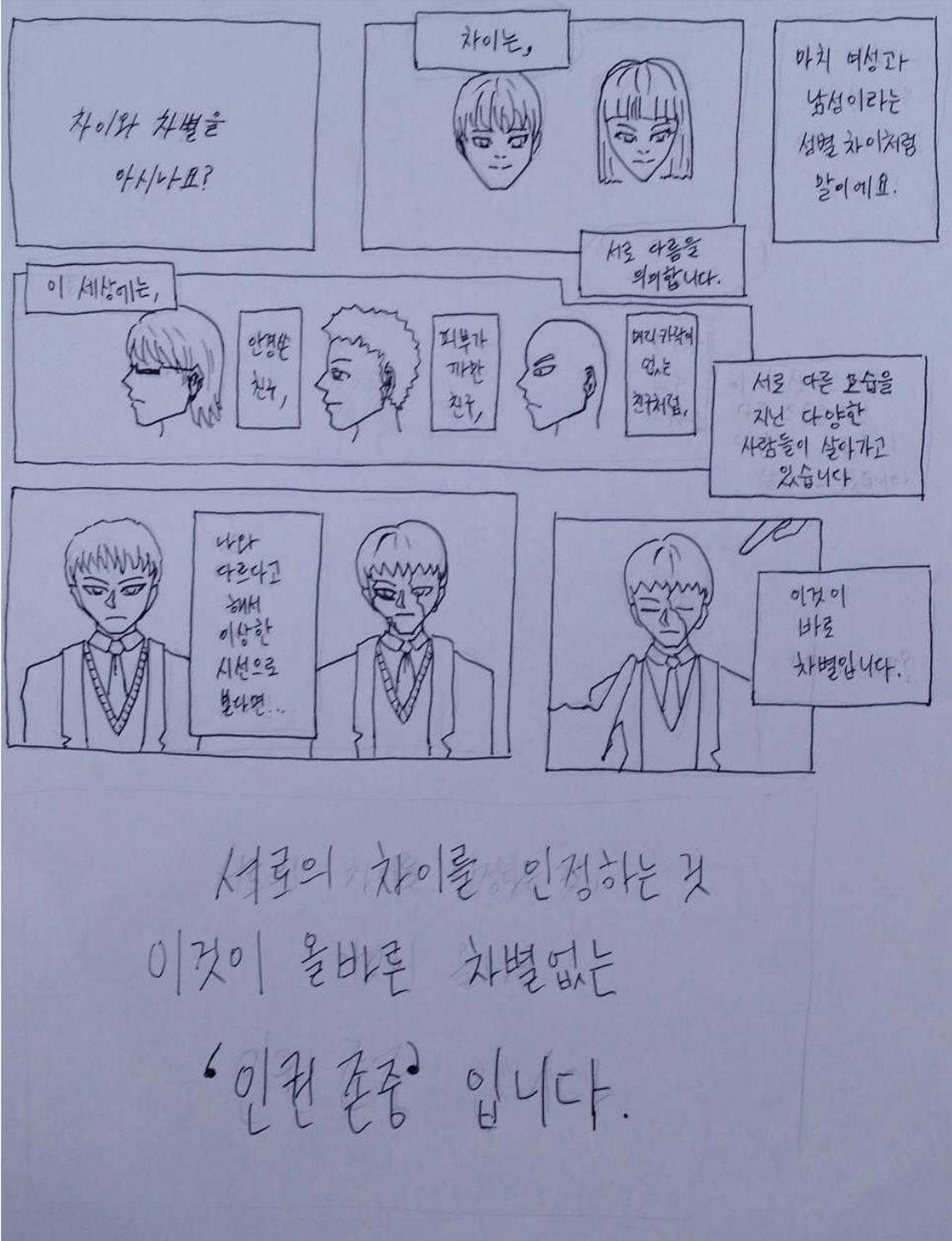
4. 감독은 왜 세 번째 소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요?

활동자료  
3

## 장애와 관련 웹툰 제작 활동

학년    반    이름

**차이와 차별...**  
**“다를 뿐 이상하지 않아요”**



☞ 위 자료는 천곡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동인권을 주제로 제작한 만화입니다.

# 영상자료를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 ‘대륙횡단’

감독 여균동  
상영시간 15분



## 즐거리

뇌성마비 장애인 김문주 씨가 겪는 일상을 ‘18년만의 외출’, ‘횡재’, ‘음악 감상시간’ 등 11개의 에피소드로 담았다. 감독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지하철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가 왜 장애인에게 ‘음악감상시간’ 이고,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는 것이 어떻게 ‘대륙횡단’ 인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사회적 중심지인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는 김씨의 절규는 이 영화의 압권이다.



## 내용이해

문주는 나이 서른에 아직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 씁니다. 취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자동사진촬영기에서 이력서에 붙일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문주는 정색을 해보지만 쉽지 않은지 이내 웃음을 터트려버립니다. 증명사진을 찍는 장면은 장애인인 문주가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환유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륙횡단>은 1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력서, 18년만의 외출, 이 감정을 알아, 친구, 횡재, 내가 본 것, 음악감상시간, 약혼식, 여행연습, 셀프카메

라, 대륙횡단’이 그것입니다. 각 에피소드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무관심과 배타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18년만의 외출’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대방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행해질 때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해진다는 것을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아줌마는 외출하려는 문주를 귀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문주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기의 입장과 기준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비장애인의 모습을 푸근한 유머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얼마나 자기 본위인지는 ‘횡재’, ‘음악감상시간’, ‘약혼식’ 에피소드에서 잘 드러납니다. ‘횡재’에서 한 행인은 실수로 떨어진 동전을 줍는 문주를 동냥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동전을 던져줍니다. ‘음악감상시간’은 지하철 계단의 장애인용 리프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아주 느린 속도’로 계단을 오르는 한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애인은 리프트가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속 터지는 느린 속도 뿐 아니라 훑쳐보는 타인의 시선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약혼식’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배제되는 문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식구가 적어서 약혼식장이 쓸령할까봐 걱정을 하면서도 문주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남겨진 문주는 무척 외로워 보입니다.

‘친구’ 에피소드에서 문주와 친구는 실없는 농담과 허물없는 욕설을 주고받습니다. 흔히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수동적인 모습이거나 비장애인 못지않은 능력과 의지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반해, 술잔을 기울이는 이들의 모습에서 허물없는 친구같고 이웃같은 살아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장면에서 친구는 문주에게 ‘뇌성마비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그 말이 문주를 움직인 모양입니다. 문주는 우연히 TV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가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네거리를 무단횡단하기로 결심합니다. 서울의 교통 중심부인 광화문 4거리, 횡단보도도 없고 지하도에 리프트도 설치돼 있지 않은 광화문 네거리를 목발을 짚고 무단횡단 하는 일은, 문주에게 대륙을 횡단하는 만큼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후 광화문 네거리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 학습지도안

지도 대상	중 · 고등학교 통합학급
본시 주제	여섯 개의 시선 ‘대륙횡단’을 보고
학습 목표	‘대륙횡단’을 시청한 후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p>-11개의 에피소드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유추하여 말해보기 (이력서, 18년만의 외출, 이 감정을 알아, 친구, 내가 본 것, 음악감상시간, 약혼식, 여행연습, 셀프카메라, 대륙횡단)</p>	5 ‘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p>◎ 활동 1 : 대륙횡단 시청</p> <p>- 등장하는 인물과 내용을 생각하며 시청하기</p> <p>◎ 활동 2 : 대륙횡단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p> <p>- ‘18년만의 외출’에서 벌어진 해프닝의 의미 이해하기</p> <p>- ‘음악감상시간’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타는 장애인의 심정 이해하기</p> <p>- ‘약혼식’에서 가족행사에 빠진 문주 이야기하기</p> <p>-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시설 알아보기</p> <p>◎ 활동 3 : 대륙횡단을 보고 한걸음 더</p> <p>- 대륙횡단 속 내용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기</p> <p>- 실제생활에서 장애인이 불편(차별)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찾아보기</p>	40 ‘	▶여섯개의 시선 영상자료 ▷영상시청을 위해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습지1  ▶학습지2
정리	<p>·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p> <p>·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생각 위주로 배려를 한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한다.</p> <p>·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p>	5 ‘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 여섯 개의 시선 '대륙횡단'을 보고 이야기 해보기

학년    반    이름

1. 문주가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는 문주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왜 집에 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릴까요?
2. 지하철 계단의 장애인용 리프트를 타고 오르는 장애인의 모습을 담은 장면에서 감독은 왜 '음악감상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3. 오이도역 사건, 발산역 사건 등 장애인용 리프트와 관련해 발생했던 사건들을 찾아보고 그에 관해 토론해 봅시다.
4. 문주의 가족들이 가족행사인 약혼식에 가면서 문주와 같이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우리 주변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토론해 봅시다.

## 여섯 개의 시선 ‘대륙횡단’을 보고 한걸음더

학년 반 이름

○ 생활 속 공공장소를 장애인의 입장에서 체험해보고 생각해봅시다.

	체험장소	불편, 고려, 개선할점	인권
1	도서관	예) 책꽂이가 너무 높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예) 점자책이 없다. 예)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구분 없이 하나만 만들어 놓았다. -	시설이용권
2	학교	예) 장애인의 학교 입학에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 수화가 가능한 교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예) 휠체어 탄 학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교육권 시설이용권
3	지하철	예)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예) 정차역에 대한 글자안내는 없고 음성 안내만 나온다. 예) 엘리베이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동권 시설이용권
4	길거리	예)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이 잘못 설치된 곳이 있다. 예) 신호음이 나지 않는 신호등이 있다. -	이동권
5	기타	예)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는다. 예) 병원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 예) 장애인 고용을 거부한다. -	시설이용권 건강권 노동권

출처 : 청소년 인권+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



## 학습목표

- ◆ 장애이해 교육 및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권을 생각하고 소감문을 쓸 수 있다.
- ◆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또는 통합학급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해당교실 및 운동장
- ▶ 준비물 : 학습활동지, 휠체어, 흰 지팡이, 점판, 점필
- ▶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하고 장애인을 대할 때 기본 에티켓에 대해서 학습한다.
  - 시각장애, 휠체어, 수화 및 지화, 점자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 소감문 작성을 통해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유의사항
  - 체험활동 시 질서를 지키고 충분히 시간을 주어 실제적인 경험활동이 되도록 한다.



## 학습지도안

지도 대상	중 · 고등학교 통합학급
본시 주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 체험
학습 목표	장애이해 교육 및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권을 생각하고 소감문을 쓸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 보기</li> <li>-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줬던 경험 이야기해보기</li> </ul> </li> </ul>	5'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 : 장애인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li> <li>- 장애인에 대한 기본 에티켓</li> </ul> </li> <li>◎ 활동 2 : 장애 체험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 체험활동</li> <li>- 휠체어 체험활동</li> <li>- 수화 및 지화 체험활동</li> <li>- 점자 체험활동</li> </ul> </li> <li>◎ 활동 3 : 체험활동 후 소감문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활동 후 소감문 작성하기</li> </ul> </li> </ul>	40'	▶교육자료 1  ▶장애 체험을 위한 각종 자료  ▶교육자료3, 연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li> <li>· 누구나 후천적 장애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장애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각 자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애인이란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의 능력만으로는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혀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 장애인에 관한 고정관념

장애인은 일을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마다 특성이 다르며 누구나 일을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 나. 장애인에 대한 기본 에티켓

#### 1) 지체장애인

- 장애가 심하지 않는 보행 장애인과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턱을 넘을 때 경증 일때는 안내자가 팔을 잡고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부축을 하면 된다.
- 장애가 심한 보행 장애인일 경우는 안내자가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 팔을 잡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
- 출입문이나 승강기에서는 지팡이나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 편리하다.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앉히거나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로 휠체어를 고정시켜야 한다. 휠체어가 움직여 브루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 뇌성마비 장애인처럼 휠체어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안전벨트를 꼭 사용하여야 한다.
- 다리가 경직되어 휠체어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휠체어 발판지지대에 다리를 고정시켜 주면 좋다.
-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시선 높이를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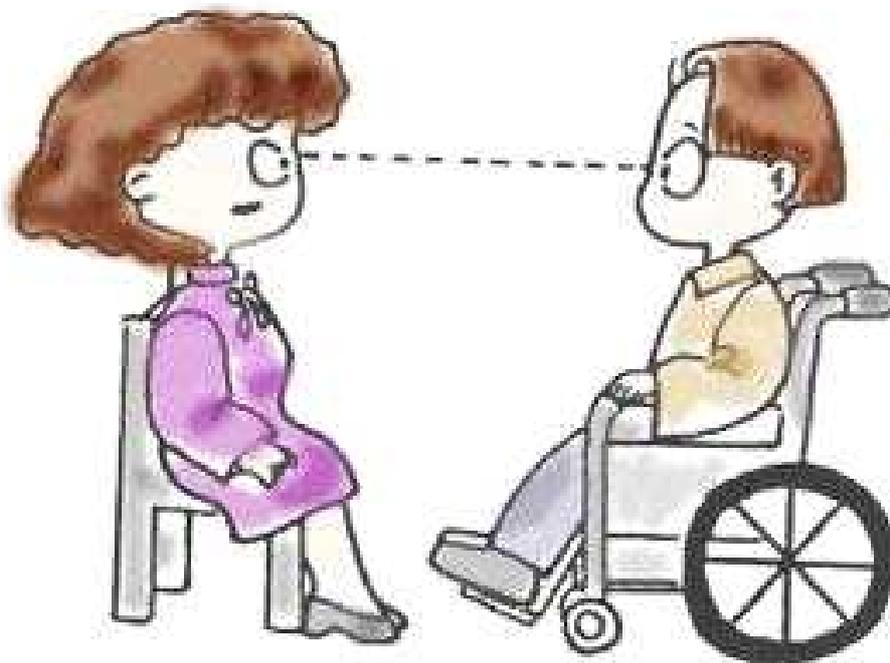
## 2) 지적장애인

- 지적장애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 지적장애인은 쉬운 일부터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
- 지적장애인에게 말할 때는 지시적인 말투로 가르치듯 말하지 않는다.

## 3) 자폐성 장애인

- 자폐성장애인이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제제하거나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 자폐성장애인은 소음, 냄새, 공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 자폐성장애인은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면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시간이 필요하다.
- 자폐성 장애인이 언어적 표현이 서툴거나 안되는 경우에는 그림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이해교육자료 인용>



<그림출처: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시각장애 체험활동>



<휠체어 체험활동>



<수화와 지화 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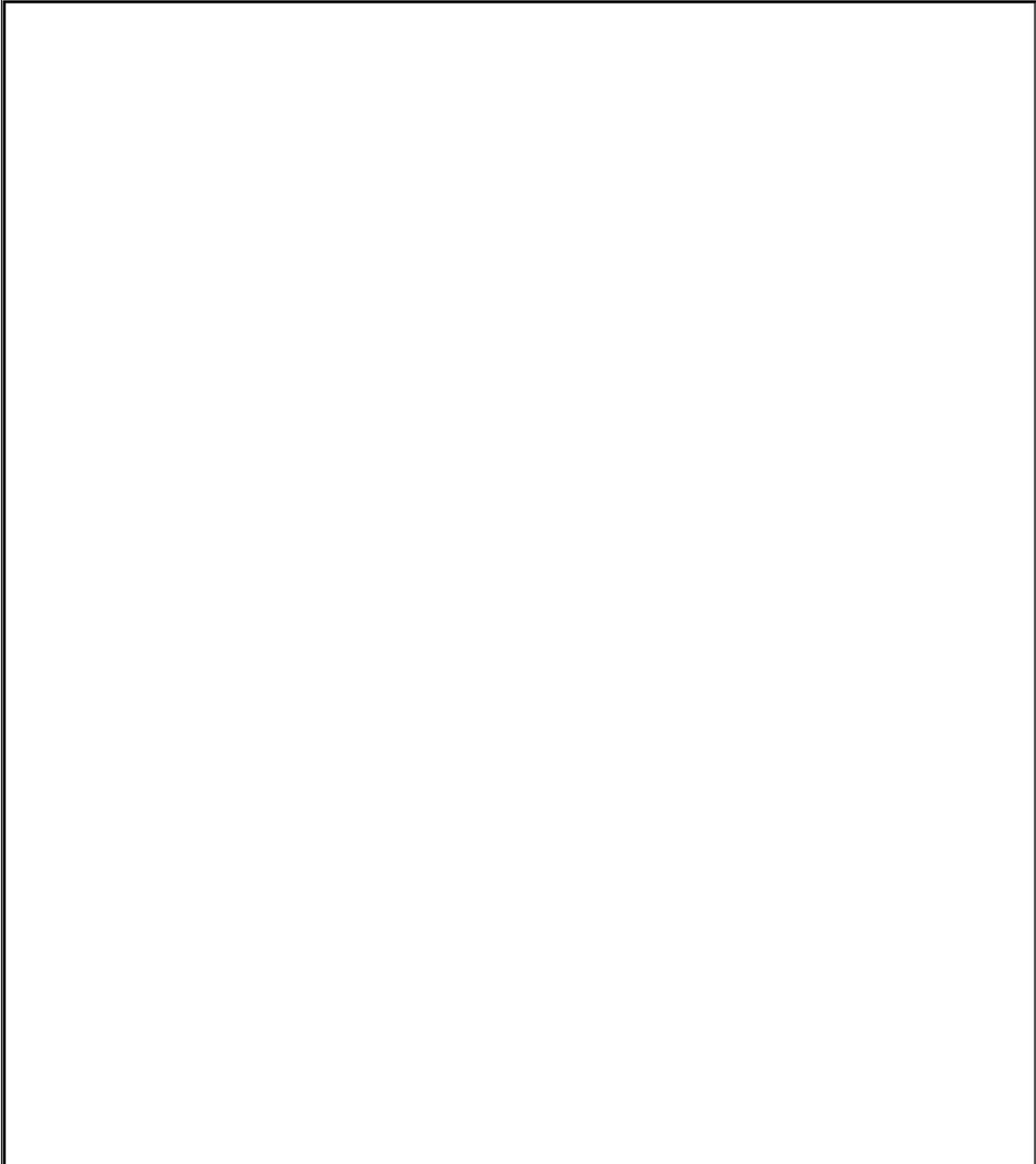
<점자 체험활동>

< 장애 체험 시 참고 사항 >

- 시각장애 체험활동 ☞ 2인 1조가 되어 시각장애체험활동을 실시
- 휠체어 체험활동 ☞ 휠체어 사용법을 숙지 후 미션활동을 수행
- 수화 및 지화 체험활동 ☞ 간단한 수화와 지화를 사용하여 인사하기  
및 자신의 이름말하기
- 점자 체험활동 ☞ 점자의 원리를 익히고 자신의 이름을 써보기

<장애체험 후 느낀 점을 써봅시다.>

학년 반 번 이름:



# 점자열쇠고리 만들기



## 학습목표

- ◆ 점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점자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다.
- ◆ 점자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또는 통합학급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또는 통합학급
- ▶ 준비물 : 점자열쇠고리 만들기 재료들, 점판, 점필
- ▶ 주요내용
  - 점자의 이해와 유래, 점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학습한다.
  - 점판과 점필을 사용하여 직접 점자를 써본다.
  - 자신이 이름이 새겨진 점자열쇠고리를 제작한다.
- ▶ 유의사항
  - 점자열쇠고리 만들기 활동 시 다양한 재료를 담을 수 있도록 바구니를 준비한다.
  - 점자를 쓸 때 읽기 기준과 쓰기 기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의 다양한 점자를 찾아보고 읽어 보는 경험을 통해 점자와 친숙해지도록 한다.



## 학습지도안

지도 대상	중 · 고등학교 통합학급
본시 주제	점자열쇠고리 만들기
학습 목표	점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점자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지식채널e 'He is wonder' 영상 시청하기</li> <li>- 소감 나누기</li> </ul>	5'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p>◎ 활동 1 : 점자의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의 이해와 유래</li> <li>- 점자의 장점과 단점</li> </ul> <p>◎ 활동 2 : 점자 열쇠고리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이프를 점판에 부착하여 자신의 이름 쓰기</li> <li>- 테이프를 뜯어 레자 리본에 부착하기</li> <li>- 캡을 끼워 집게로 누르기</li> <li>- 오링반지를 이용하여 원형열쇠고리 달기</li> </ul>	40'	▶교육자료1 ▶교육자료2, 각종만들기 재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만든 열쇠고리의 점자를 다시 읽어 본다.</li> <li>· 체험활동 후 자신의 소감과 느낌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 자신이 설계한 디자인의 의미를 발표하도록 한다.

## 1. 점자란?

인쇄물을 의사소통도구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시력이 약한 시각 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부호글자

## 2. 점자의 유래

1808년 프랑스의 육군장교 바르비에(Barbier)는 야간전투에서 군사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는 점으로 된 문자를 생각해 냈다. 점자는 이 군사용 야간문자에 기초한 것으로, 1829년 파리맹학교에 재학중이던 루이 브라이유에 의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점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시각장애인의 지식교육이 가능해 졌다.

루이 브라이유는 세로 6줄, 가로 2줄씩 12점으로 만들어진 야간문자가 손끝으로 한꺼번에 읽기가 너무 불편해 이를 반으로 줄여 세로 3줄, 가로 2줄씩 6점으로 새로운 점자체계를 만들었다.

## 3. 점자의 장점

- ❶ 시각장애인의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이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점자이고, 시각장애인의 지식교육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버금가는 문자라 해서 '훈맹정음'이라고 불리운다.
- ❷ 시력이 너무 약한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촉각을 활용한 문자생활이 가능하다.
- ❸ 정독과 재독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대면낭독의 경우는 책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없거나 다시 책 보려면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다. 그러나 점자책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고,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으므로 정독이 가능하다.

#### 4. 점자의 단점

- ❶ 읽기 속도가 묵독이나 청독보다 현저하게 느리다. 촉각으로 감지 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눈으로 글을 읽거나 대면낭독에 비해 읽기 속도가 떨어진다.
- ❷ 점자도서나 간행물을 구하기 어렵다. 점자도서나 간행물은 일반 묵자도서나 인쇄물과 제작방법이 다르고 별도의 추가 비용과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다.
- ❸ 점자는 양이 방대해서 휴대하거나 보관이 어렵다. 성경 한 권을 점역하면 약 20권 정도가 되고, 백과사전은 커다란 책장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점역된 책의 양이 매우 방대해진다. 묵자 책은 글자의 크기를 줄이거나 종이를 사용해 인쇄하면 많은 양을 한 권의 책에 담을 수 있지만, 점자는 크기를 줄이거나 크게 할 수 없고, 점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부피를 줄일 수가 없다.
- ❹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억력과 이해력이 필요하다. 점자는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만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면 앞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억력과 이해력이 요구된다.

점자를 읽고 쓰는 방법	점자 관련 만화 자료												
<p><b>점자는 6개의 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점은 1점, 2점...6점으로 부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쓰기</b> : 점판과 점필을 사용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종이를 눌러서 점을 찍는 방식</li> <li>● <b>읽기</b> : 종이를 뒤집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음</li> </ul> <hr/> <p>▶ <b>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b></p> <table style="margin-left: 20px;"> <tr><td>● ●</td><td>④ ①</td></tr> <tr><td>● ● →</td><td>⑤ ②</td></tr> <tr><td>● ●</td><td>⑥ ③</td></tr> </table>  <hr/> <p>▶ <b>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b></p> <table style="margin-left: 20px;"> <tr><td>● ●</td><td>① ④</td></tr> <tr><td>● ● →</td><td>② ⑤</td></tr> <tr><td>● ●</td><td>③ ⑥</td></tr> </table> 	● ●	④ ①	● ● →	⑤ ②	● ●	⑥ ③	● ●	① ④	● ● →	② ⑤	● ●	③ ⑥	<p>* 제10화 _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해 드립니다.</p> 
● ●	④ ①												
● ● →	⑤ ②												
● ●	⑥ ③												
● ●	① ④												
● ● →	② ⑤												
● ●	③ ⑥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점자이해 배너자료>

## 점자열쇠고리 만들기

### <만드는 방법>

1. 점자(점자의 이해/읽고 쓰는 방법/ 자음과 모음)에 대해 이해합니다.
2. 점자의 자음과 모음을 보고 점자 쓰기/읽기를 합니다.
3. 테이프에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찍어 열쇠고리를 만듭니다.
4. 점자의 자음과 모음을 보고 이름을 확인합니다.

### <만드는 과정>



점자로 이름 쓰기

테이프 뜯어 붙이기

캡 끼워 집게로 누르기

### <필요 운영 물품 및 구입사이트 안내>

물품명	단위 및 규격	구입사이트(참고용)
민자 집게	개	[다이모 공구] <a href="http://www.dymo09.com/">http://www.dymo09.com/</a> 1588-4508
원형 열쇠고리	세트(5개입)	
다이모테이프 9mm	개, 3m	
틱톡 리필테이프 9mm	개, 3m	[POLA09] <a href="http://www.pola09.com/">http://www.pola09.com/</a> 031-401-0017
레자리본 1.3cm 캡용(90cm)	개	
레이스캡 1.3cm	세트(10개입)	
O링 실버(9mm*7mm )	세트(50개입)	
오(O)링반지	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생활용구전시장] <a href="http://www.sori.or.kr/ca">http://www.sori.or.kr/ca</a> <a href="http://www.sori.or.kr/ca">ne/index.asp</a> 02-440-5202
단면회중점관(점판)	개	
점필(납작삼각형)	개	

※ 해당 물품의 디자인과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모의재판



## 학습목표

-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모의재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 ◆ 모의재판을 통해 장애학생의 읽기 능력과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 ▶ 준비물 : 교육자료1(선서), 교육자료2(대본)
- ▶ 주요내용
  - 학교폭력과 관련된 재판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장애학생들은 대본 연습을 통해 읽기 능력과 자신감을 갖는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통해 비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 ▶ 유의사항
  -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지도안

지도 대상	중 · 고등학교 통합학급
본시 주제	<b>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모의재판</b>
학습 목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모의재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제시</li> <li>- 재판과 관련된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li> </ul>	5'	▷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 : 모의재판 이해하기</li> <li>- 모의 법정의 용어 및 내용 이해하기</li> <li>- 모의법정을 위한 역할 배정하기</li> <li>● 활동 2 : 모의재판 활동</li> <li>- 자신의 역할을 위한 개인 연습하기</li> <li>- 리허설을 통한 모의 법정 연습하기</li> <li>- 법정과 유사하도록 좌석 배치하기</li> <li>- 친구들 앞에서 모의 재판하기</li> </ul>	40'	▶ 선서자료  ▶ 시나리오자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의재판 후에 자신의 소감 나누기</li> <li>· 모의재판의 내용과 판결에 대한 의견 공유하기</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에 앞서

가해자는 OO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가해자는 평소 성격이 활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위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쳐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인 조용희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보 같은 0” 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조용희가 먼저 자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머리를 치고 “바보” 라고 부른 것은 맞지만 친구들과 사이의 장난 정도 수준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지,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판사, 참여, 속기사, 검사, 변호인 등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재판부	판사 3인[재판장(장애학생), 우배석(장애학생), 좌배석] 참여관 등 4인[참여관, 실무관(장애학생), 속기실무관, 경위실무관]
검 사	1인
변호인	1인(장애학생)
피고인	1인(가해자)
증인	2인[모범생(장애학생), 조용희]

▷제1단계◁  
개정,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재판장]

지금부터 광주모의법원 형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5고합1호 폭행 등 사건의 피고인 가해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피  
고인석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예(대답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나간다)

[변호인]

(이 때 피고인의 변호인도 변호인석으로 나간다)

[재판장]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이 가해자 맞습니까?

[피고인]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재판장]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해보세요.

[피고인]

생년월일은 1997년 10월 2일입니다.  
주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000 입니다.

▷제2단계◁  
모두 진술

[재판장]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인]

(피고인석에 앉는다)

[재판장]

(검사에게)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사]

예(일어난다).

피고인은 2015. 2. 20. 오후 4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조용희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보 같은 ○”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입니다.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보다 여성스럽고 힘이 약하지만, 친한 친구들도 많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툭툭 치거나 험한 말을 하는 등 괴롭혀 왔는데 이번에는 도를 넘는 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따끔한 벌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형사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검사가 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요?

[피고인]

제가 그 날 교실에서 조용희의 머리를 때리고 “바보”라고 부른 것은 맞지만, 조용희가 먼저 저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고, 친구들 사이에 장난을 친 정도이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3단계 ◁  
증거조사

[재판장]

그럼 이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찰 측은 증거신청을 하시지요.

[검 사]

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등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음을 밝히기 위하여 같은 반 친구인 모범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변호인도 신청할 증거가 있는가요?

[변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용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잠시 고민한 다음) 검사 및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모두 채택합니다.

증인 모범생, 조용희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참여관]

(모범생, 조용희의 학생증을 받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판장에게 본

인이 맞다고 알려준다)

[재판장]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들]

(증인석에 있는 선서서를 조용희가 대표로 낭독한다)

[재판장]

증언은 검사측 증인인 모범생부터 하고 변호인측 증인인 조용희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생 증인만 증인석에 앉고 피해자 조용희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법정에서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조용희가 법정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검 사]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은 피고인과 같은 반 친구이지요?

[증인(모범생)]

예.

[검 사]

피고인은 조용희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나요?

[증인(모범생)]

피고인은 중학교때부터 불량기가 있고 남을 잘 때린다는 소문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희도 미리 알아서 피고인을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괜히 근처에 있다가 피해라도 당할까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면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검 사]

피고인은 조용희를 평소에도 자주 때리고 욕을 하였나요?

[증인(모범생)]

예. 특히 지난 달부터는 더 심해져서 하루에 한 번 꼴로 때린 것 같습니다. 욕은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검 사]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증인(모범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조용희가 가지

않는다고 때린 적도 있고, 자기가 부르는데 못 들은 척 책을 보고 있는다고 때린 적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웃지 않는다고 때린 적도 있습니다.

[검 사]

이 사건 당일에는 어땠나요?

[증인(모범생)]

그날은 조용희가 자기 말을 못 들은 척 했다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때렸습니다.

[검 사]

조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나요?

[증인(모범생)]

예. 조용희가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용희를 “야! 조용!”하고 불렀습니다. “조용”은 조용희의 별명입니다. 조용희가 계속 책만 읽고 쳐다보지 않자 피고인은 다가가서 “야 이 바보같은 놈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검 사]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었나요?

[증인(모범생)]

예. 같은 반 친구들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검 사]

이상입니다.

[재판장]

변호인측은 증인에게 반대신문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증인은 피고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증인(모범생)]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동네로 전학을 왔는데 같은 반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변호인]

그런데도 피고인이 불량하다든지 평소에도 친구들을 때리고 다녔다는지 하는 것은 증인만의 생각이 아닌가요?

[증인(모범생)]

우리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아는 사실입니다.

[변호인]

증인을 비롯한 같은 반 친구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욕을 할 때 옆에 있었다면서 보고만 있었나요?

[증인(모범생)]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괜히 나섰다가 피고인에

게 맞을 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변호인]

심하게 때리거나 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증인(모범생)]

그건 아닙니다.

[변호인]

이상입니다.

[재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모범생)]

(증인석을 나와 방청석으로 돌아간다)

[재판장]

다음으로 조용희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위]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용희를 불러 증인석으로 안내한다)

[증인(조용희)]

(증인석에 앉고, 피고인의 눈을 피한다)

[재판장]

피고인측 증인이므로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증인은 피고인의 짝이지요?

[증인(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피고인 말에 따르면 증인은 그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불렀음에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한번 힐끗 쳐다보았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증인(조용희)]

솔직히 제 시간을 방해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인]

그래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나요?

[증인(조용희)]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벌떡 일어나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엄청 무시했어요!

[재판장]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소리를 칠 경우 퇴정을 시키겠습니다. 변호인, 피고인 진정시키기 바랍니다. 신문 계속하세요.

[변호인]

피고인은 증인이 자기를 무시하는 데 화가 난 나머지 “바보”라고 부르며 머리를 툭툭 치긴 하였지만 때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증인(조용희)]

아닙니다. 엄청 아팠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변호인]

그 일로 상처가 나서 치료를 받거나 한 적이 있나요?

[증인(조용희)]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

이상입니다.

[재판장]

검사는 증인에게 반대신문 하시기 바랍니다.

[검 사]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때리던가요?

[증인(조용희)]

손바닥으로 제 뒤통수를 대여섯 차례 힘껏 때렸습니다.

[검 사]

욕도 하였나요?

[증인(조용희)]

예. “바보 같은 놈”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

[검 사]

기분이 나빴겠군요.

[증인(조용희)]

예. 친구들도 다 보고 있는데, 욕도 듣고 맞기도 하였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기분이 나빴습니다.

[검 사]

증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나요?

[증인(조용희)]

예.

[검 사]

이상입니다.

[재판장]

증인 힘드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조용희)]

(증인석을 나와 방청석으로 돌아간다)

[재판장]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더 신청할 증거는 없습니까.

[검 사,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그럼 이상으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단계◁  
피고인 신문

[재판장]

피고인, 증인석으로 나와 앉으세요.

[재판장]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고 난 후) 검사, 피고인신문을 시작하세요.

[검 사]

특별히 신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변호인 신문하세요.

[변호인]

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기분이 나쁜 나머지 친구를 툭툭 치고 험한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피해를 입히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요?

[피고인]

예.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

그렇지만 조용희가 그 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생각이지요?

[피고인]

예. 사과하겠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전혀 없지요?

[피고인]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이상입니다.

[재판장]

그럼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돌아가세요.

[피고인]

(증인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으로 돌아간다)

▷ 제5단계 ◁  
최종 의견진술

[재판장]

검사는 의견을 진술하세요.

[검 사]

(일어서서) 피고인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소한 폭행이나 욕설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이번 일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화나게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변호인께서는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변호인]

(일어서서) 한창 나이의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작은 다툼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고 피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이나 욕설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되,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피고인]

(일어서서) 제가 평소 친구들에게 지나친 장난도 많이 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로, 그런 행동들이 친구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후회됩니다.

[재판장]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단계 ◁

판결선고

[재판장]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친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폭행과 모욕의 정도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비록 친구들 사이의 장난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모의법원 2015고합1호 폭행 등 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광주지법>

# 장애인권 UCC 제작활동



## 학습목표

- ◆ 장애인권을 홍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애인권 UCC를 제작할 수 있다.
- ◆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장애인권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 ▶ 준비물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장애인권 UCC 제작을 위한 참고 사이트 , UCC 작품 설명서
- ▶ 주요내용
  - 전국 장애이해 사진 및 실천사례 UCC 수상작 감상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한다.
  - 완성한 장애인권 UCC에 대한 작품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 유의사항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므로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학습지도안

지도대상	중·고등학교 통합동아리
본시주제	장애인권 UCC 제작하기
학습목표	장애인권에 관해 홍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애인권 UCC를 제작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제시</li> <li>- 장애인권관련 UCC 감상하기</li> <li>- 감상 후 소감 나누기</li> </ul>	5'	▶장애이해사이트 활용.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 : 장애인권 UCC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 찾기</li> <li>- 장애인권 UCC 제작을 위한 소스 수집하기</li> <li>- 장애인권 UCC 스토리보드 작성하기</li> </ul> </li> <li>● 활동 2: 장애인권 UCC 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윈도우 무비메이커의 기본 기능 익히기</li> <li>- 사진 및 동영상 삽입하기</li> <li>- 자막 및 나레이션 삽입하기</li> <li>- 최종 점검 및 동영상 완성하기</li> </ul> </li> <li>● 활동 3: 장애인권 UCC 작품 설명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설명 및 제작과정 작성하기</li> <li>- 제작 후 느낀 점 작성하기</li> </ul> </li> </ul>	40'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윈도우 무비메이커 활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제작한 장애인권 UCC 설명하기</li> <li>· 장애인권 UCC 제작 후 소감 발표하기</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 자신이 제작한 UCC의 의미를 발표하도록 한다.

**장애이해사이트 (<http://edu.knise.kr/>)**

장애이해사이트는 알기 쉬운 장애, 장애이해교육, 보조공학 활용하기, 장애인편의 시설, 정보마당 등의 탭을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이해교육 탭에서 수기 당선작을 탑재하여 장애학생이 우리 학교나 사회에서 편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8	[수업자료 제작하기]플드웨이브 사용한 소리 편집 #5	이상철	2013.12.15	(1)	4
47	[수업자료 제작하기]플드웨이브 사용한 소리 편집 #4	이상철	2013.12.15	(1)	3
46	[수업자료 제작하기]플드웨이브 사용한 소리 편집 #3	이상철	2013.12.15	(1)	3

**에듀에이블사이트 (<http://www.eduable.net/>)**

에듀에이블사이트는 학습자료, 학급경영자료, 교육용프로그램자료, 커뮤니티, 특수교육정보 등 다양한 특수교육 정보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 이미지 자료를 탑재하였고, 포토게시판과 UCC 게시판을 운영하여 UCC 제작시 유용한 자료들이 많다.

작품 유형	<b>UCC</b>		
제목	어깨동무		
소속		이름	
작품설 명 및 제작과 정	<p>예시) 어깨동무</p> <p>영상속의 두 주인공은 저와 장애를 가진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입니다. 제 친구는 지적장애 1급을 가진 특수학급 학생이고, 저는 장애학생도우미입니다. 지난 2014년에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하다가 올해에도 역시 장애를 가진 친구의 도우미가 꼭 되고 싶어서 특수학급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p> <p>이렇게 우리 둘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영상을 통해 장애를 가졌지만 우리와 다름이 없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p>		
제작 후 느낀점	<p>또래 도우미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이것을 영상을 재구성 하면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 확실히 없어졌고, 장애를 가진 친구가 통합반에 오면 반갑습니다.</p> <p>영상을 만들고 나니 더욱 기억에 남고 좋은 것 같아요.</p>		

# 장애인권홍보작품 제작활동- 표어, 포스터



## 학습목표

- ◆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홍보작품을 만들 수 있다.
- ◆ 통합적 인권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 ▶ 준비물 : 인권표어 및 포스터(민주인권포털 자료 활용), 컴퓨터 또는 미술용품
- ▶ 주요내용
  - 차별에 관련한 영상을 보고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이해한다.
  - 인권공모전 수상작(표어, 포스터)를 감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본다.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인권홍보작품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유의사항
  - 포스터를 제작할 경우 무조건 물감을 이용하여 만들기 보다는, 사진을 찍어 촬영하거나 간단한 픽토그램 형태로 제작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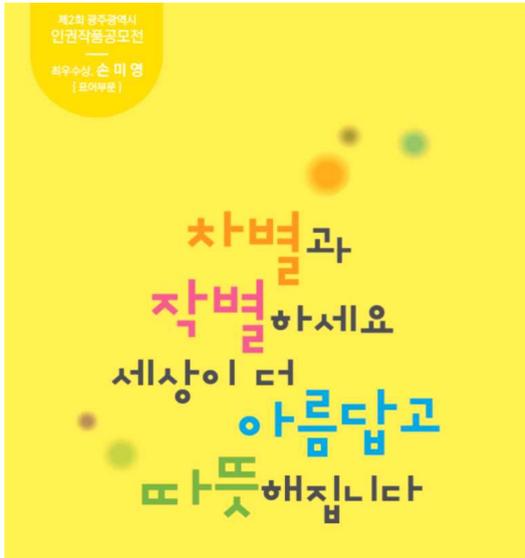
## 학습지도안

지도대상	중·고등학교 통합동아리
본시주제	인권홍보작품만들기-표어, 포스터
학습목표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홍보작품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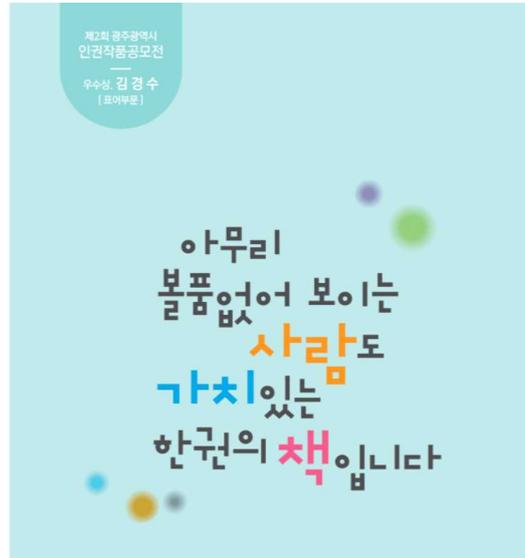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른 눈과 갈색 눈’ 영상을 통해 차이와 차별에 대해 생각해본다.</li> <li>- 특정한 신체 부위 때문에 차별을 겪었을 때의 기분을 발표한다.</li> </ul>	5'	▶ EBS 지식채널e '푸른 눈과 갈색 눈' 영상.
전개	<p>◎ 활동 1 : 다양한 인권 홍보 작품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관련 표어 감상하기</li> <li>- 인권 관련 포스터 감상하기</li> <li>- 표어와 포스터를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기</li> </ul> <p>◎ 활동 2 : 인권 홍보 작품 제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관련 표어 제작하기</li> <li>- 인권 관련 포스터 제작하기</li> </ul>	40'	▶ 광주광역시청 민주인권포털 사이트 활용  ▶ 연필, 도화지, 지우개  ▷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만든 인권 표어와 포스터 설명하기</li> <li>· 친구들의 인권 홍보 작품을 보며 자신의 의견 발표하기</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참고자료  
1

인권 관련 표어 및 포스터



표어: 차별과 작별하세요.  
세상이 더 아름답고 따뜻해집니다.  
작가: 손미영(서울 관악구)



표어: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도 가치 있는 한 권의 책임입니다.  
작가: 김경수(서울 송파구)



포스터: 인권은 똑 같습니다.  
작가: 이해걸(부산 연제구)



포스터: 눈  
작가 : 한방에(인덕대)  
[출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포털]

부족하다고 쓸모 없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작품 설명서

<b>작품명</b>	<b>부족하지 않습니다.</b>
<b>제작자</b>	<b>학교      학년      반      번      이름:</b>
<b>작품 설명</b>	<p>부러진 포크는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러진 포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진 포크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장애인은 할 수 없을 거야...’, ‘장애인이 어떻게 직장에 다닐 수 있지?’ 이러한 편견들이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제작한 포스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러진 포크도 충분히 맛있는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부족하다고 쓸모없지 않습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p>
<b>제 작 스토리</b>	<p>우연히 포크를 쓰다가 부러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포크를 꺼내 썼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포크와 다름없이 잘 찍혔습니다. 이걸 계기로 장애인도 걸모습이 다르지만 결국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제가 직접 포크를 잡고 초코파이를 찍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충분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빛의 양과 배경, 각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초코파이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의 “정”을 대표하는 간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출처: 광주침단고 최강해 학생작품>

# 인권 머그컵 만들기 활동



## 학습목표

- ◆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인권을 표현한 인권 머그컵을 제작할 수 있다.
- ◆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알고,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동아리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 ▶ 준비물 : 칼, 가위, 머그컵, 열테이프, 전사기, 전사용 물감, 색연필, 사인펜
- ▶ 주요내용
  -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을 다양한 사물과 단어로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이유를 친구들에게 설명한다.
  -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에 관한 개념과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A4 용지를 가로 18cm, 세로 8cm로 자른 후 다양한 재료(물감, 색연필, 사인펜)를 사용하여 인권을 표현한다.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 자신이 만든 인권 머그컵의 의미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 유의사항
  -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전사기 사용 시 교사가 함께 활동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을 표현하도록 한다.



## 학습지도안

지도 대상	중 · 고등학교 통합동아리
본시 주제	인권 머그컵 만들기
학습 목표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인권을 표현한 인권머그컵을 제작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인권홍보 작품을 보며 생각 나누기</li> </ul>	5'	▶ 학생들이 제작한 인권홍보작품
전개	<p>◎ 활동 1 : 인권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은 ○○이다' 생각하기</li> <li>- '인권은 ○○이다' 와 어울리는 그림 구상하기</li> <li>- A4 용지에 인권 표현하기</li> </ul> <p>◎ 활동 2 : 인권머그컵 제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를 열테이프를 이용하여 머그컵에 붙이기(그림이 컵 쪽에 닿을 수 있도록 밀착하여 붙이기)</li> <li>- 전원을 연결 후 전원 스위치를 켜기(컨트롤박스 오른쪽 전원)</li> <li>- 230도 예열이 되면 뽀~뽀~뽀~ 라는 부저가 울리면 레바를 열어주고 컵을 넣은 후 레바를 닫고 ENTER 버튼 누르기</li> <li>- 뽀~소리가 없어지고 온도가 230도부터 설정된 온도 350도까지 올라가면 설정된 시간 카운터로 바뀌고(60초)가 끝나면 부저가 울린다.</li> <li>- 완료 부저가 울리면 레바를 뒤로 밀고 컵 빼기</li> <li>- 컵이 식은 후 열테이프와 A4용지 제거하기</li> </ul>	40'	<p>▶ 머그컵, 열테이프, 가위, 전사기</p> <p>▷ 전사기 사용 시 교사가 함께 활동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한다.</p> <p>▶ 연필, 도화지, 지우개</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만든 인권 머그컵의 의미 발표하기</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 학생들이 생각한 다양한 인권의 의미를 다시한번 설명한다.

활동자료  
1

# 인권을 표현하기

학년 반 이름

- 내용 : <학생용 활동자료>에 따라 답을 게시판에 부착한다.
- 진행방법
  - 분임별로 <학생용 활동자료>의 답을 한다.
  - 인권의 의미를 <학생용 활동자료>의 예문처럼 정리한다.
  - 교사는 모둠별로 답의 내용과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발표하게 한다.

• 인권은 무엇인가? 인권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 학생들이 작성하여 벽에 부착한 인권 카드

<p>양말</p>  <p>인권은 양말이다. 왜냐하면, 양말두개가 '함께' 있어야 한 켤레가 되기 때문이다.</p>	<p>나비</p>  <p>인권은 나비다.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이다.</p>
<p>기차</p>  <p>인권은 기차이다. 왜냐하면, 모든 칸이 '함께' 달려 가기 때문이다.</p>	<p>구두</p>  <p>인권은 구두다. 왜냐하면,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 문이다.</p>

<학생용 활동자료>

활동자료  
1-1

# 인권 머그컵 만들기

학년 반 이름

**활동목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한다.

**활동안내:**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하게 하여 컵에 만드는 것임을 소개한다.

**활동방법:** 인권 표현하기-전사컵에 붙이기-찍어내기



주어진 종이 인권을 표현하기-주어진 전사재료를 활용하여 종이 꾸미기



인권 표현한 예시물



인권 컵 제작하기



인권 컵 완성하기

# 전사용품 구입 안내 및 방법

## 전사란?

• 그림이나 글씨를 옮기어 베끼는 것



## 전사란?

구입처: 일원산업(예시)  
(<http://www.ilwoncup.com/>)



## 전사방법

1. A4용지를 가로18cm 세로 8cm 자른 후 그림그리기
2. A4용지를 열테이프를 이용하여 머그컵에 붙이기
3. 전원을 켜 후 삐삐 소리가 나면 컵을 넣기
4. 손잡이를 당긴후 start 버튼 누르기
5. 완료되면 삐~ 소리가 난후 꺼내기

\* 화상주의

## 다양한 전사 용품

## 전사 방법 안내



## 인권 머그컵 예시 작품

# 신문기사를 통한 장애인권교육



## 학습목표

- ◆ 다양한 신문기사를 읽고 장애인권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 ◆ 친숙한 신문기사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장애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개요

- ▶ 대상인원 : 통합교육 동아리
- ▶ 소요시간 : 50분
- ▶ 장소 : 학습 도움실
- ▶ 준비물 : 필기도구, 관련기사자료1,2,3, 교육자료1,2,3
- ▶ 주요내용
  - ‘장애학생의 인권을 위한 통합교육’ 기사를 읽고 통합교육과, 교육기회의 평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없애는 편견의 벽’ 기사를 읽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한 경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법 찾기 등을 학습한다.
  - ‘진짜 장애인 심벌은 무엇일까?’ 기사를 읽고 심벌이 주는 느낌의 차이를 알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인 심벌을 그려본다.
- ▶ 유의사항
  -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예시들을 활용하여 지도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는 방법도 활용한다.



## 학습지도안

지도대상	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본시주제	신문기사를 통한 장애인권교육
학습목표	다양한 신문기사를 읽고 장애인권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활동단계	주요 활동	시간 (분)	학습자료(▶), 유의점(▷)
도입	<p>◎ 과제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신문의 헤드라인 기사 읽기</li> </ul>	5'	▷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p>◎ 활동 1 : 장애학생의 인권을 위한 통합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사 읽기</li> <li>- 통합교육에 관한 생각 적기</li> <li>-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하여 생각하기</li> <li>-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이해하기</li> </ul> <p>◎ 활동 2 :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없애는 편견의 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사 읽기</li> <li>-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생각하기</li> <li>- 유니버설디자인을 접한 경험 나누기</li> <li>-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법 찾기</li> </ul> <p>◎ 활동 3 : 진짜 장애인 심벌은 무엇일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사 읽기</li> <li>- 심벌이 주는 느낌 쓰기</li> <li>-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장애인 심벌 찾기</li> <li>-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인 심벌 그리기</li> </ul>	40'	▶ 관련기사 자료1,2,3  ▶ 교육자료1,2,3,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심벌에 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한다.</li> <li>·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li> </ul>	5'	



광주 첨단고등학교(교장 전상훈)는 6월동안 장애학생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장애학생폭력예방교육은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통합반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을 하면 수업시간에 비장애학생들이 방해를 받거나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은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줄이고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부모, 형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애학생폭력예방교육 중 비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왔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인문계고교에 왜 다니는 거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실히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경우 학교장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장애학생들은 여전히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장애 학생을 이질적인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이 통합교육의 현실이다.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통합교육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교육 기회의 평등이다. 장애를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장애학생의 인권’을 위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무등일보 소성현 시민기자>

1. 학창 시절 장애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 지적장애 1급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에 갈 수 없다면 장애인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4.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5. 빈칸을 채워 봅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는 “( )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 ), 장애정도에 따라 ( )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5살 꼬맹이 시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발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는 아저씨들이 불평을 쏟아 내고 있었다. “걸리 적 거리게 왜 저런 걸 내보낸담...” 바로 뉴스 한쪽에서 나오는 수화통역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30년이 훌쩍 흐른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수화통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설마 아직도 걸리적거린다는 표현을 할까?

학교에서 학생들과 ‘인권’에 관련한 수업을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제안하고 구상해보는 수업이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용어를 처음 듣는 듯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이나 노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두에게 편리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다.

학생들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디자인을 설계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 미완성에 그쳤다. 그만큼 모두를 배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

EBS의 지식채널e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디자이너 패트리샤 무어에 관해 방송을 했다. 패트리샤 무어는 코카 콜라 병을 만든 디자인 회사 레이먼드 로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신제품 냉장고에 대한 회의 중, “관절염을 앓거나 손힘이 약한 노인들도 쉽게 열 수 있는 냉장고 손잡이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뿐이었다.

고민 끝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한 패트리샤 무어는 솜으로 귀를 막고, 뿌연 안경으로 시야를 흐리고, 철제 보조기로 다리를 뻗뻗하게 만들

었다. 이러한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저상버스, 폭이 넓고 턱이 낮은 출입구, 시각 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등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설비나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면 돈이 아깝다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다. 복잡한 대형 마트나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 주차장을 보며 불만을 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은 임산부,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나는 절대 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출처: 무등일보 소성현 시민기자>

1.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2. 냉장고에 손잡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3. ‘저상 버스’ 를 타본 경험이 있나요? 느낌을 말해 봅시다.
4. 주변에서 임산부,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을 찾아봅시다.
5. 그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국제표준 장애인 심벌(왼쪽) / 뉴욕주가 채택한 장애인 심벌(오른쪽)>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주가 장애인 심벌을 변경하는 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장애인 심벌을 보다 역동적이고 매력적으로 바꿨다”라며 “장애인 권리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제표준 장애인 심벌과 뉴욕주가 채택한 장애인 심벌을 보고 비장애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광주광역시 첨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두 심벌을 보여주고 느낌을 물었다. 광주 첨단고 백수빈(2학년) 학생은 “왼쪽 그림은 앉아서 도움을 기다리는 느낌이고, 오른쪽은 혼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최강해(2학년) 학생은 “왼쪽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느낌이고, 오른쪽 그림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패럴림픽 같기도 해요.”라고 말했다.

이렇듯 두 심벌을 보는 개인적인 느낌과 견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뉴욕 주의 새 심벌을 만들어 낸 사라 핸드런의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Accessible Icon Project)”는 분명 큰 의미가 있다.

사라 헨드런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기반을 둔 예술가이자 연구원이다. 그녀는 인공 신체기관, 장애인 정책, 사람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는 에이블러(Abler)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사라 헨드런은 오랜 역사 동안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표현해왔고, 이전 장애인 표지는 그러한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팔과 다리를 기계의 한 부분처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나타내고, 누군가 그를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Accessible Icon Project)”라는 게릴라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예전의 표지판에 새로운 장애인 심벌을 붙이는 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사람들과 네티즌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결국 뉴욕 주는 사라 헨드런의 장애인 심벌을 법제화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라 헨드런이 제작한 심벌보다 훨씬 앞선 2002년부터 KS 표준안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KS 표준안은 헨드런의 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좀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권고에 따라 현재 국제 표준 장애인 심벌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사실 심벌이 주는 의미가 정확히 잘 전달된다면 두 심벌은 단순한 그림의 차이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장애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장애인 심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보다는 장애인의 능동적인 모습과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 심벌을 사용했으면 한다

[출처] 진짜 장애인 심벌은 무엇일까?|작성자 광주인권사무소 소성현기자

진짜 장애인 심벌은 무엇일까?

1. 두 가지 심벌을 보고 각각의 느낌을 적어 봅시다.

장애인 심벌	심벌이 주는 느낌
	
	

2.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심벌을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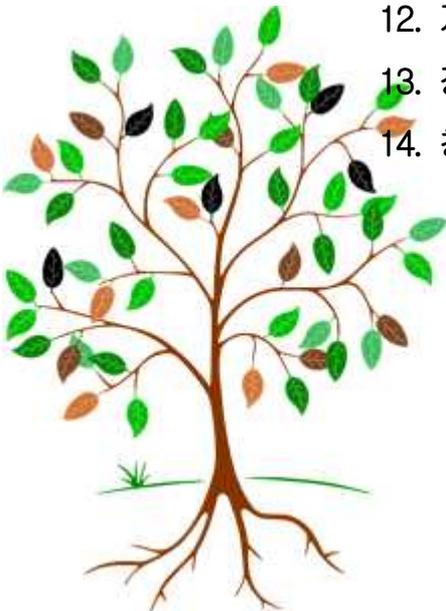
3.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장애인 심벌을 그려보고 설명해 봅시다.

장애인 심벌 디자인	심벌의 의미

# 제 2 부

##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 및 행사 운영 계획-

1. 장애인권 통합동아리 활동 계획
2. 청소년 장애인권 홍보작품공모전 계획
3. 또래도우미(장애학생도우미)제도 운영 계획
4.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계획
5.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계획
6.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연극 공연 계획
7.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인권여행 실시 계획
8. 장애인권교육 '장애인명사초청강의' 실시 계획
9.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계획
10.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자료
11. 인권 존중을 위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계획
12. 지역사회 장애인권 캠페인 실시 계획
13. 장애학생들이 펼치는 연극 관람 및 봉사활동 실시계획
14.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제강제동원 현장답사 계획



# 장애인권 통합동아리 활동 계획

## 1. 활동(프로그램, 또는 사업) 명

### **나눔과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홍보 활동**

## 2.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장애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
-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만한 학교생활 지원
- 모두가 존중 받고 소통하는 행복한 인권존중의 공동체 사회 구현

## 3. 활동 분야

- 구성원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의 날 기념 홍보 및 행사 진행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내·외 활동전개
  - 장애인식 개선 관련 영화·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감상 및 토론 활동

## 4. 활동계획(방침, 추진 일정 등)

### ○ 동아리 개요

- ❖ **동아리명** : 장애인권학생동아리
- ❖ **구성** : 특수교사 소○○, 학생 11명(장애학생 5명, 비장애학생 6명)
- ❖ **활동시기** : 정기활동 매주 1회 2시간(동아리 활동 시간)
- ❖ **활동목적** :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청소년 문화 형성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 **방침**
  - 모든 활동의 기획, 진행과정에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한다.
  - 동아리 활동과 관련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제작하고 특수학급에 비치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활용한다.

○ 실천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권 홍보물 제작 활동을 통한 인권의식 키우기</li> <li>■ 장애, 비장애 친구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체험활동</li> <li>■ 공공장소 장애인식개선 홍보 활동 전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인권의식 키우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이해 및 다양한 인권관련 영화감상 후 인권에 대한 토론</li> <li>■ 인권 관련 독서활동 후 독후감 작성</li> <li>■ 장애인 명사에게 듣는 장애인 인권 이해하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인권의식 찾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축제 행사에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동아리 활동 참여</li> <li>■ 현장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li> <li>- 특수학교 현장 견학</li> <li>- 지역사회 공공기관 봉사활동</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인권의식 누리기</b></p>

○ 월별 계획

구분	월	내용	비고
인권의식 키우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조직 및 동아리활동 계획</li> <li>■ 동아리 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li> </ul>	장애, 비장애 학생 사전 체크리스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권 관련 영상 시청』</li> <li>■ 장애인권 홍보작품 공모전 안내 및 구상</li> <li>■ 장애인의 날 주간 장애인권 홍보 캠페인 활동</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지원센터 견학</li> <li>■ 장애인권 관련 독서 후 독후감 작성</li> <li>■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li> </ul>	
인권의식 찾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권 홍보 작품 제작</li> <li>■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li> </ul>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이해 사진 및 UCC 제작활동</li> <li>■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직업 체험 활동</li> <li>■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초청 장애인권 이해하기</li> <li>■ : 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애인권</li> <li>■ 강의 소감문 작성</li> </ul>	
인권의식 누리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비장애 친구들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li> <li>■ 영상 자료를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요리 활동</li> <li>■ 지역사회 봉사활동</li> </ul>	장애, 비장애 학생 사후 체크리스트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활동 포트폴리오 작성 및 반성 평가회</li> </ul>	

## 5. 기대 효과

- 장애인 바로알기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갖기를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관 형성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다양성 인정 및 공감 유도
- 지역사회에 필요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존재 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는 계기 마련

##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 계획

### 1. 개요

#### □ 목적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여 장애인식 개선 도모
-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통합교육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여건 조성

#### □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 21조(통합교육) ①항
  -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공모 계획

#### □ 공모 개요

- 공모 주제 : ‘장애와 인권’을 소재로 한 순수 창작 작품
- 공모 기간 : 2015. 3. 23.(월) ~ 6. 15.(월)
- 접수 기간 : 2015. 3. 30.(월) 16시 30분까지
- 접수 장소 : 학습도움실 2층 담당자: 소○○
- 공모 대상 : ○○학교 재학생 모두(개인)

부분	내 용
사 진	-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우정을 표현한 내용
UCC	- 장애인식 개선 또는 장애인권 관련 내용
포스터	- 장애인 차별방지 또는 장애인권 관련 내용
수 필	- 장애인 친구와 함께 했던 경험이나 장애인권교육 활동 후 소감문

- 공모 내용 ※ 출품작은 학생이 스스로 제작한 작품이어야 함

□ 작품 형식

부분	형 식
사 진	- JPEG파일로 사이즈 3,000 픽셀 이상, 4MB이상 , <b>1인당 1매(미 발표작)</b> , 보정 및 리터칭 사진은 원본과 함께 제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 ※ 메타데이터는 사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해당사진의 [속성] - [자세히]에서 확인 가능
UCC	- 640 x 480pixel 이상, 5분 내외 동영상(mov, avi, mpeg 파일형식/100MB 이하), <b>1인당 1작품의 미 발표작</b> , 다큐멘터리, CF,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가능 ※ 캠코더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촬영 및 제작하여 응모 가능
포스터	- 4절지 크기(394 x 545mm), 그 외 자유 형식의 순수 창작물의 1인당 1작품
수 필	- 글씨 크기 12포인트, 글씨체 굴림체, 1페이지 이상의 순수 창작물의 1인당 1작품

□ 제출 방법

- 공통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
  - 작품설명서 A4용지 1매 이내의 자유 형식으로 작성(<서식2>참고)
- 사진 부문
  - 담당자 메일 발송
- UCC 부문
  - CD 또는 USB 자료로 제출(반드시 제출자 성명표기)

□ 유의사항

- 각 부문별 개인별로 응모함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은 교내에 전시할 예정
- 응모작품의 초상권,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공모전에 응모 및 수상, 모방한 작품으로 밝혀지면 입상을 취소함
- 수상작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장애이해 사진 및 실천사례 UCC 공모전에 참가 권장함
- UCC의 경우 더빙 시 반드시 자막을 삽입하고, 저작권 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료 음원 사이트 및 오픈 소스 사용을 권장함

- 문의 : 학습도움실 소○○ (000-0000)

### 3. 심사 및 시상 계획

#### □ 심사 방법 및 심사 기준

- 심사 기간(예정) : 2015. 6. 16.(화) ~ 6. 26.(금)
- 심사 방법
  - 각 부문별 심사(사진, UCC, 포스터, 수필)
  - 심사위원단(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5인을 구성하여 심사
- 심사 기준 : 총 100점 만점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주제 적합성 20점, 창의성 20점, 대중성 20점, 기술성 20점, 구성 완성도 10점, 가중치 10점
  - ※ 동점일 경우, 주제 적합성, 창의성 등의 심사기준 순으로 선정
- 결과 발표(예정)
  - 일시 : 2015. 6. 29.(월)
  - 첨단고등학교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시상 내역

부문	금상	은상	동상
사 진	1명	2명	3명
UCC	1명	2명	3명
포스터	1명	2명	3명
수 필	1명	2명	3명
합계	4명	8명	12명

#### □ 부상(상품) 내역

부문	금상	은상	동상
부문별 동일	3만원 상당의 상품	2만원 상당의 상품	1만원 상당의 상품

**【서식 1】**

2015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 참가 신청서

<b>공모 부문</b>	<b>사진 · UCC · 포스터 · 수필(택1)</b>
--------------	--------------------------------

제 목			
학 교 명		학년반	학 년 반
이 름	(남, 여)	참가 부문	
휴대전화		이메일	
전화번호			

본인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2015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5. . .

참가자 \_\_\_\_\_

【서식 2】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 작품설명서	
제목	
소속	
이름	
<p>&lt;작품설명-제작 동기 및 배경, 제작 과정, 제작 후 느낀 점 기술&gt;</p>	

**【서식 3】**

**초상권 사용 동의서  
사진 촬영 및 배포판권 소유 등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학교 주최의 『2015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에 출품을 목적으로 실시된 사진·UCC 촬영에 동의하며 본 사진 및 작품의 출품을 허락합니다.

성 명 : \_\_\_\_\_의 부모/보호자  
(서명)

연락처 : \_\_\_\_\_

성 명 : \_\_\_\_\_의 부모/보호자  
(서명)

연락처 : \_\_\_\_\_

성 명 : \_\_\_\_\_의 부모/보호자  
(서명)

연락처 : \_\_\_\_\_

출품 이후, 본 사진·UCC 및 출품작은 전시 및 홍보활동에 활용될 수가 있고, 출품작의 판권 및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사진 및 UCC 촬영자 : \_\_\_\_\_ (서명)

2015년      월      일

【참고자료-공고문 안내장】

##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 안내

첨단고 특수학급에서 2015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본교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및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 보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갖고자 청소년 장애인권홍보 작품을 공모합니다. 수상자의 우수작품은 별도로 전시회를 갖겠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함께하는 우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첨단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참가자격 : 첨단고등학교 재학생 모두(개인)
2. 기 간 : 2015. 3. 23. ~ 2015. 6. 15.
3. 주 제 : 장애와 인권을 소재로 한 자유형식의 창작 작품
4. 부 문

부문	내 용
사 진	-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우정을 표현한 내용
UCC	- 장애인식 개선 또는 장애인권 관련 내용
포스터	- 장애인 차별방지 또는 장애인권 관련 내용
수 필	- 장애인 친구와 함께 했던 경험이나 장애인권교육 활동 후 소감문

5. 형식

부문	형 식
사 진	- JPEG파일로 사이즈 3,000 픽셀 이상, 4MB이상 , 1인당 1매(미 발표작), 보정 및 리터칭 사진은 원본과 함께 제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 ※ 메타데이터는 사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해당사진의 [속성] - [자세히]에서 확인 가능
UCC	- 640 x 480pixel 이상, 5분 내외 동영상(mov, avi, mpeg 파일형식/100MB 이하), 1인당 1작품의 미 발표작, 다큐멘터리, CF,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가능 ※ 캠코더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촬영 및 제작하여 응모 가능
포스터	- 4절지 크기(394 x 545mm), 그 외 자유 형식의 순수 창작물의 1인당 1작품
수 필	- 글씨 크기 12포인트, 글씨체 굴림체, 1페이지 이상의 순수 창작물의 1인당 1작품

■ 접수방법

- 자신이 선택한 해당 부문에 2015. 3. 30.까지 2층 학습도움실에서 접수 (참가신청서 비치됨)

5. 제 출 처 : 작품설명서와 함께 2015. 6. 15. 까지 2층 학습도움실로 제출(담당:소성현선생님)

6. 시 상 : 부문별 시상 및 상품 수여

부문	금상	은상	동상
사 진	1명	2명	3명
UCC	1명	2명	3명
포스터	1명	2명	3명
수 필	1명	2명	3명
합계	4명	8명	12명

## 또래도우미(장애학생도우미)제도 운영계획

### □ 목적

1.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성공적인 통합교육환경 조성
2.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권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또래도우미를 통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한 학습 모델 제시
4. 비장애학생들에게 사회복지,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와 제공을 통한 진학 상담

### □ 방침

1. 또래도우미 학생의 활동은 통합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또래도우미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상담을 통해 선정하고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또래 도우미는 장애학생이 입학 된 학급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4.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활동 점수(12점)를 부여하고 시상하도록 한다.

### □ 월간 또래 도우미 추진 계획 및 활동내용

월	교육 내용	교육시간	또래도우미 주요 활동 내용
3	상담을 통한 또래 도우미 선정 및 활동안내	수시, 동아리	1) 수업시간에 간단한 수업보조하기
4	또래 도우미 표창	수시, 동아리	2) 숙제, 준비물, 유인물 안내해주기
5	장애학생과 또래도우미 간담회 개최	수시, 동아리	3) 이동수업시간에 함께 이동하기
6	또래도우미 장애인권교육	수시, 동아리	4)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행사시 도우미 활동하기
7~8	방학 중 활동 안내 및 봉사활동 점수 부여	수시, 동아리	5) 학교생활과 관련된 또래 상담 활동하기
9	장애학생과 또래도우미 2차 간담회	수시, 동아리	
10	장애인 명사 초청 강연 참석	수시, 동아리	
11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수시, 동아리	
12	봉사활동 점수 부여 및 소감록 작성	수시, 동아리	

### □ 기대효과

1. 장애학생들을 위한 또래도우미들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통합 환경 조성
2. 또래도우미 활동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진로 정보 제공

## 또래 도우미 활동 안내

### 1. ‘또래도우미’란?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최대한 확대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친구관계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다양한 과목으로 인해 학문적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장애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학급에서 소외된 학교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또래도우미’학생은 장애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도울 뿐 아니라 친구가 되어 장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래 도우미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 2. ‘또래도우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 장애학생 가까이에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 학교 생활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필기나 숙제, 실습, 준비물 등)나 장애학생이 교외 활동 및 이동수업으로 인해 가정통신문을 못 받을 경우 또래 도우미 학생이 하나 더 챙겨 다음날 알려줍니다.
- 모든 수업의 수업 장소와 위치를 알려주고 동행합니다(체육, 음악, 미술, 수준별 수업 등 이동수업).
- 수학여행, 수련회, 백일장/사생대회 등의 학교행사가 있을 때, 반 전체 대열에서 열외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 또래도우미 활동을 통해 비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이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합니다.

- 좋은 친구 활동 시 어려움이 있거나 수업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께 즉시 말씀드립니다.

### 3. ‘또래도우미’의 마음가짐 및 태도

- 먼저 장애를 가진 친구도 나와 동일하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인간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 친구를 도울 때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과잉보호, 과잉염려, 과잉친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사려 깊게 행동합니다. 장애 그 자체보다도 친구들의 태도가 더 큰 마음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친구를 교정하거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버립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바보, 머저리’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은 인격적 모독입니다.
-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4. 또래도우미(대상 학생)

- 장애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의 학생(1인 1명)

### 5. 봉사 시간 부여

- 활동 기간은 일년이며, 중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 좋은 친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 좋은 친구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학기별 1회 보고서를 제출하며(총2회) 제출일은 6, 11월입니다.

### 6. 신청서 작성

- 담임교사와 상담 후 첨부된 양식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부록4-또래도우미활동보고서양식>

## << 활동 보고서 >>

년 월 일

이름		학번	
활동 내용			
느낀 점 및 건의 사항			
확 인 란	작성자 : 담 임 :		(인) (인)

##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계획

### □ 목적

1. 일반학생의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예방
2.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례 및 법률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 근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 □ 방침

1.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상담활동을 실시한다.
2. 통합 반을 대상으로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를 위한 일반교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5.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실시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기간 : 2015. 5.~ 2015. 10.
2. 대상 : 장애학생이 소속된 통합 반
3. 교육 내용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례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예방법
  -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의 의미를 알고 폭력 예방 방안 토론
4. 지도교사 : 소○○(특수교사)
5. 세부일정

회수	대상 학급	월	담임	장소	실시시간	장애학생포함
1	3학년 4반	5월	오○○	해당교실	창체	유
2	3학년 5반	5월	고○○	해당교실	창체	유
3	2학년 2반	6월	류○○	해당교실	창체	유

### □ 기대효과

1.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긍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
2.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3. 장애학생의 학교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확립 및 장애인권 신장

<붙임 1-학습지도안>

단원명	창체		소단원명	창체		차시	1차시
지도일시	2015 5. 1. 7교시	대상	통합반	장소	3-4	지도교사	소○○
학습목표	1.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예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3.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의 의미를 알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수업자료	-장애학생 대상 폭력 사례영상물 (가해자와 피해자(장애학생), 방관자, 방어자,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의 의미) -학생 활동지(폭력상황의 다양한 부류, O,X 퀴즈)						
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장애학생 대상 폭력 사례(VCR1)를 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입장을 발표하게 한다.				학교폭력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학습활동 전개 1. 가해학생(비장애학생)의 심리와 피해학생(장애학생)의 감정 알아보기<VCR2-1> 2. 방관자 그룹의 문제점 알아보기<VCR2-2> 3. 방어자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기<VCR2-3> 4.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VCR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피해 학생모두가 상처를 받음을 강조한다.</li> <li>· 방관자는 잠재적인 가해자임을 중점지도 한다.</li> <li>· 방어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li> <li>· 특이행동의 의미를 지도한다.</li> </ul>		
정리	내용 정리하기 · O·X퀴즈를 통해 내용 정리하기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폭력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O·X퀴즈 시 질문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도 자료

### 1. 도입

- 가해학생 입장의 폭력 사건과, 피해장애학생 입장의 성폭력 사건, 두 개의 사례(VCR1)를 보고 난 후 크고 작은 학교폭력의 경험을 알아보고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 등을 발표하게 한다.
- 학교폭력은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 양쪽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되므로 모두 피해가 된다는 것을 지도한다.
- 10명의 학생 중 가해자는 단 1명 정도,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나머지 9명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나머지 9명의 학생이어야 함을 지도한다.

### 2. 전개

가. 비장애학생들 사이의 폭력과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차이

- 1) **폭력이란?**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압박, 강제하는 모든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한다.
- 2) **가해자(비장애학생)** : 특히 정신지체, 학습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감정, 의사 표현이 서투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3) **피해자(장애학생)** :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서툴러 학교폭력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피해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비장애학생과 똑같고, 오히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 받을 수 있다.

나. 방관자의 심리와 문제점

#### 1) 폭력상황의 다양한 부류

- (1) 피해자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상
- (2) 가해자 : 폭력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끈 대상

(3) 동조자 : 폭력 상황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직접 개입해서 동조 한 대상으로 가해자와 함께 폭력을 행사함

(4) 방관자 - 폭력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은 대상

## 2) 방관자의 문제점

(1) 10명중에 가해자는 1명 정도이고 나머지 9명이 방관자인 셈이다.

(2) 당장 피해는 주지 않으니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방관자가 동조자로

변해 폭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3) 가해자가 따로 있고 나는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가볍다고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4) 집단 따돌림 같은 폭력이 좋은 예다

(5) 잠재적 가해자라고 볼 수 있다.

(6) 장애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이를 방관하는 경우는 더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

## 다. 방어자의 역할과 자정작용

### 1) 방어자의 역할

(1) 폭력상황에서 ‘그만해!’라고 말하여 폭력상황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

(2)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이 불합리하고 비열한 행위임을 알려주는 역할

(3)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마음

이 들게 하는 역할

(4)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 2) 자정작용

(1)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있어 교사와 학부모 나아가서는 교육기관이나 경찰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방어자) 스스로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함

(2) ‘방어자’가 될 것인가? 또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생 양심의 선택임

(3)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에서 ‘방어자’는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

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음

(4) '방어자'는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의 폭력 대상이 아닌 동료 또는 친구로 다가가

게 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음

## 라.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과 의미

### 1)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들

(1) 반복해서 툭툭 건드리고 귀찮게 한다.

(2) 수업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한다.

(3) 신경 거슬리게 반복해서 중얼거리거나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4) 책이나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물건을 깨기도 한다.

(5)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다

### 2) 장애학생의 특이한 행동의 의미

(1) 정인지체 학생의 경우 :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친근감의

표시로 친구를 놀리거나 귀찮게 하기도 한다.

(2) 자폐성장애학생 :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자리를 이

탈할 수도 있다.

(3) 정서·행동장애학생 : 감정기복이 심한 경우가 있다.

(4) 장애학생 : 억울한 일이 있거나 무언가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답답해

하는 경우 기물파손이나 분노 표출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5) 모든 행동의 원인 :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학생에게 놀림을 당했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든지 등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변에서 함께 살

펴보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붙임 4-학생활동지: O,X퀴즈>

## 장애학생 폭력 관련 생각해 보기

- 1)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
- 2) 따돌림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3)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구류나 소지품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는 학교 폭력이 된다.( )
- 4) 장애학생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음료수를 사 먹거나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이다.( )
- 5)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학교 폭력이다.( )
- 6) 장애학생 등에 낙서하고 팔에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 장난이다.( )
- 7)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 8)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금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
- 9) 피해학생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으면 범죄가 안된다.( )

### \* 설 명 \*

1)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돌림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 4)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구류나 소지품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 장애학생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음료수를 사 먹거나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형법상 <공갈죄>로 형법 제350조제1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형법상의 <강요죄>로 형법 제32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강요하면 이것 또한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6) 장애학생 등에 낙서하고 팔에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학교 폭력이 됩니다.

7)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8. 9)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금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짐을 잊지 마세요.

<붙임 5-참고자료>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TIP**

1. 정상인의 반대말이 비정상인이고,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 또는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아닌 정상인입니다.
2.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입니다.
4. 통합학급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입학되어 있는 학급입니다.
5. 통합학급담임교사 :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6. 통합학급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통합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일반(비장애)학생입니다.
7. 통합교육의 필요성 :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성인이 되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령기부터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어우러져 생활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 장애인들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4) 장애인복지법 또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한 배려와 약간의 기다림의 미덕을 가져준다면 원만한 통합교육과 온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약하고 힘이 없기도 합니다.

나는 힘이 강한 친구에게 비굴하지 않고, 힘이 약한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멋진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주변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 법률상의 학교폭력 유형

 <p>신체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손, 발로 때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폭행죄, 상해죄)</li> <li>·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죄)</li> <li>·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li> <li>·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li> </ul>
 <p>언어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예:외모 놀림, 바보 등 비하하는 말 등)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li> <li>·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된 내용을 퍼뜨려도 성립이 가능</li> </ul>
 <p>금품 갈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li> <li>·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li> <li>·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li> <li>·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li> </ul>
 <p>강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li> <li>·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li> <li>·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자해 등 스스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li> </ul>
 <p>따돌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li> <li>·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강요죄)</li> <li>·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등</li> </ul>

##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계획

### □ 목적

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경험을 통한 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2.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감사를 통한 긍정적 인성 함양

### □ 근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복지법 12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과 주간을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들을 권장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12조(장애인의 날)**

- 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방침

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2.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한다.
3. 장애란 잘못이 아닌 개성의 일부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시 : 2015. 4. 15.(수) ~ 4. 24.(금)
2. 대상 : 전교생 및 전 교직원
3.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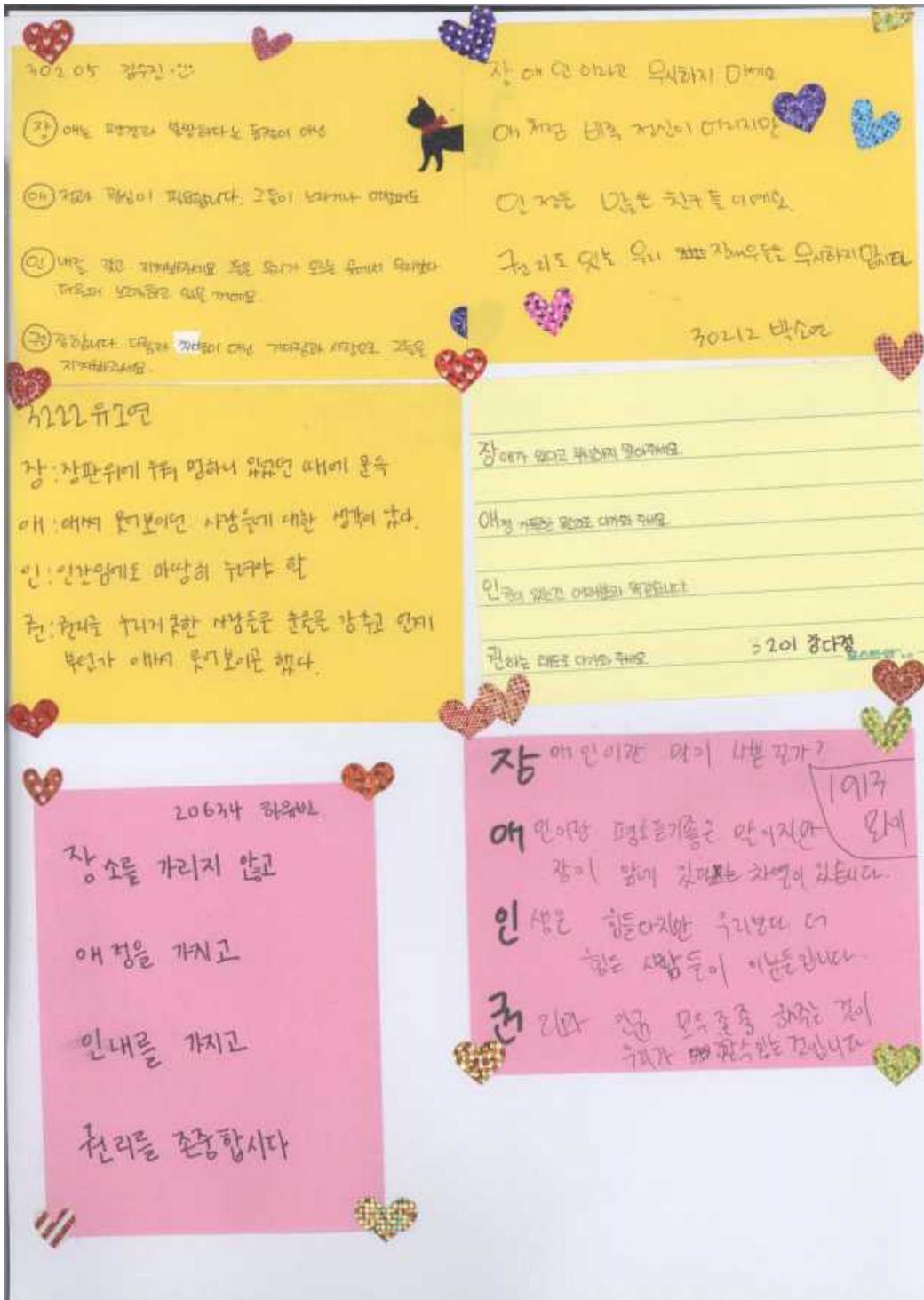
일 정	내 용	담당자	대 상	비 고
4월 15일	또래도우미 학생들의 장애인권홍보물품 제작활동	소○○	또래 도우미	학습도움실
4월 17일	교장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훈화 말씀 청취 후 간담회 및 선물 증정	소○○	특수학급	선물증정
4월 20일	장애이해연수실시	소○○	전교사	연수물 제작

일 정	내 용	담당자	대 상	비 고
4월 20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모의 법정체험	이○○ 이○○ 소○○	특수학급, 장애인권동 아리, 법정동아리	체험활동
4월 20일	장애인식개선 '대한민국 1교시' 시청	각반담임	전교생	7교시
4월 24일	또래 도우미 시상	이○○	또래 도우미	교장실
4월 20일~24일	통합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소식지 발 간	장애인권 동아리	전교생	소식지 제작
4월 20일~24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 실시 '장애 인권 사행시 짓기'	장애인권 동아리	전교생	문화 상품권
4월 20일~24일	장애인권관련 포스터 게시 및 장애인식개 선캠페인	장애인권 동아리	전교생 및 전교사	교내 게시
4월 20일~24일	장애이해교육 가정통신문 게시	소○○	학부모	홈페이지
4월 20일~24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자료 홈페이지 탑재 및 배부	소○○	학부모 및 전교사	전교사 파일안내

#### □ 기대효과

1.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긍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할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할 것이다.
3.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장애인권 사행시 짓기 당선작 모음



“  
**자** 애인분들을 나의  
**아** 인처럼 소중히  
**이** 정가득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권** 해야 실천되는 행동이 아닌  
 우리사회의 당연한 마음가짐  
 입니다”  
 27점서만

**장** 애는 가진사람에게도 권리는 있는데다  
**애** 도 어른도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인** 간과 마음어떻게 안면서도 무시해버립니다.  
**권** 리를 무시하지만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302 강다희

**장**: 애는 다름이 아니에요  
**애**: 어떻게 관심 하나들을  
**인**: 인권을 더 보장 받을 우리보다 더 잘  
**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2015년 11월 15일

2015년 11월 15일  
 장난치지 맏고  
 애정을 담아 대해주세요  
 인간애 인간으로  
 권리를 서로 지켜주세요

##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연극 공연 계획

### ■ 목적

- 준비된 공연발표는 자신 그리고 동료에 대한 이해로 사회적 역할수행 극대화
- 무대 위 경험은 장애학생, 보호자 및 향유기관 그리고 주변인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기회 제공
- 공연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능력 향상

### ■ 방침

- 장애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언어와 감정표현을 통해 장애 인권을 신장시킨다.
- 통합학급 학생 및 비장애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 공연 관람을 신청한 학생들은 방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한다.
- 공연을 위한 모든 활동은 안전에 유의하여 유익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 공연관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 공연관람 후 후기 작성과 이벤트를 실시하고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제공한다.
- 장애학생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장애학생과 가족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 세부 운영 계획

#### 1. 공연 개요

- 공연명 : 2015 en-ABLE 극놀이학교 ‘액션활극 ‘해와 달’
-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19:00 ~ 20:00
- 장 소 : 씨디아트홀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79, B1)
- 출 연 : ○○학교 학습도움실

## 2. 공연참가대상 - 70여명

- 주요내빈(○○학교, 재활협회) 5명
- ○○고 학습도움실 출연진 10명
- ○○고 동료 교사 및 학급친구 30명
- 출연진 가족 20명
- 연극 담당 및 강사 5명

## 3. 초청공연

- 아카펠라/우쿨렐레 연주- 춤추는 가족음악단(문화공동체 아우름)

## 4. 연극 공연일정

일시	제목	내용
14:00~18:30(4'00)	무대설치 및 리허설	공연준비_무대설치, 조명 및 장비 셋팅, 분장, 의상 착용 / 최종 리허설
18:30~19:00(30")	관객입장 및 사전음악	사전음악
19:00~19:15(15")	초청공연	아카펠라 / 우쿨렐레 연주 - 춤추는 가족음악단
19:15~19:30(15")	공연 안내 및 사전영상	내빈소개 인사말 환영사_1명 : 장애인 재활협회장 격려사_1명 : ○○고 교장 공연 사전영상(5")
19:30~19:50(20")	액션활극 해와 달	○○고/공연
19:50~20:00(10")	무대인사	무대인사 및 사진촬영
20:00~21:00	뒷정리	

## 5. 작품줄거리

-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각색한 작품으로, 떡을 팔고 집에 돌아오던 어머니가 호랑이에 잡혀가자 형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

## 6. 출연진

성명	역할	성별	연령	소속
김00	해설1	남	18	○○학교 학습도움실
박00	해설2	남	18	○○학교 학습도움실
장00	호랑이	남	18	○○학교 학습도움실
정00	문지기	남	18	○○학교 학습도움실
김00	엄마	여	19	○○학교 학습도움실
김00	자동차	남	17	○○학교 학습도움실
안00	형	남	17	○○학교 학습도움실
조00	동생	남	17	○○학교 학습도움실
0기0	최종보스	남	17	○○학교 학습도움실

### ■ 기대 효과

- 지적장애와 지적장애인 복지인권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제고 및 관심 유도
- 지적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의식을 고양시켜 스스로가 우리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기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능동성을 배양
- 평등과 인본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 환경 조성

<교육자료-장애학생 공연을 위한 대본예시>

## 액션 활극 해와 달

해설1: 김○○, 해설2: 박○○, 엄마: 김○○, 호랑이: 장○○, 형: 안○○,  
동생: 조○○, 자동차: 정○○, 문: 정○○, 최종보스: 염○○

### 1. 소개

(오프닝음악. 해설1,2 무대 앞에 나선다.)

해설1 :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재미있는 연극 ‘액션 활극 해와 달’ 등장인물  
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설2 : 호랑이입니다. 엄마입니다. 형입니다. 동생입니다.

(여동생은 남학생이다.)

해설1 : 그리고 문들입니다. 자동차입니다.

해설2 : 마지막으로 최종보스입니다.

해설1,2 : 그럼 박수와 함께 ‘액션 활극 해와 달’ 시작하겠습니다.

### 2. 엄마와 호랑이.

(음악, 섬 집 아이.)

해설1 : 엄마가 떡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엄마 무대에 등장한다.)

엄마: 아이고 힘들다. 어서 가서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줘야지

해설2 :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액소의 ‘으르렁’.)

(벌벌 떠는 엄마와 떡들.)

(호랑이 손가락 한 개를 보인다.)

해설1 : 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 맞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 살려주세요 떡이 없어요

호랑이: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엄마와 호랑이. 무대를 원으로 돌며 추격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결국 잡히고 만다.

호랑이에게 잡혀 퇴장하는 엄마)

### 3. 배고픈 형제

(경쾌한 음악과 함께 형과 동생이 등장한다.)

해설1 : 전에 이야기 했지만 형입니다.

(형, 인사한다.)

해설2 : 믿기 힘들겠지만 동생입니다.

(동생, 인사한다. 갑자기 꼬르륵 소리. 동생 배가 고프다.)

해설1 : 동생이 배가 고프나봅니다.

(다시 한 번 꼬르륵 소리)

동생: 엄마는 왜 안 오시지!! 아 배고파

해설1 :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떼를 쓴다.

(또 꼬르륵 소리. 동생, 뒤집어져 누워 떼를 쓴다.)

동생: 배고프다고 통닭 통닭!

형: 조금만 참아! 곧 엄마가 오실꺼야 엄마가 오시면 맛있는 저녁 먹자! 우리 TV 볼까?

동생: 그래 알았어

(형, 리모컨으로 TV를 켜다. 뉴스 음향과 함께 해설2, 앵커가 된다.)

해설1 : 긴급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깊은 산속에 위치한 까막단이라는 산적 패가 엄마들을 납치해간다고 합니다. 일명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산적 패로 산길을 혼자 가는 여자들의 먹을거리 등을 모두 빼앗고 결국 납치까지 하는 파렴치한이라고 합니다. (형과 동생을 보며) 애들아, 너네 엄마도 잡혔거든? 이상 긴급 속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깜짝 놀라는 형과 동생. 어쩔 줄을 모른다.)

해설2 : 형제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형: 어찌지 엄마가 산적 패에게 납치 됐데

동생: 어찌긴 당장 엄마를 구하러 가야지(휴대폰으로 전화)

해설1: 아, 동생이 자동차를 부르네요.

(네비게이션음악과 함께 자동차 등장한다.)

자동차; 깝 어서 타 내가 데려다 줄께

(자동차의 몸동작-춤을 따라하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형과 동생.)

해설1 : 드디어 까막단 본부가 있는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지요 길이 없어 더 이상 차로 갈 수가 없군요

(멋지게 인사하며 퇴장하는 자동차.)

해설2: 자동차를 돌려보내는군요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용감한 형제는 산길을 헤쳐나 갑니다

(괴기스런 음악과 함께 샤 막 뒤에 장애물을 넘어 까막단 본부로 간다)

해설1: 드디어 까막단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 노래와 함께 문1,2가 등장한다.)

(형제와 문들, 서로 노려본다.)

(우리집에 왜 왔니, 노래와 함께 울동.)

노래 : (문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오누이) 엄마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문들) 니네 엄마를 왜 찾니 왜 찾니 왜 찾니?

(오누이) 울 엄마라 찾는다 찾는다 찾는다.

형: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엄마를 납치하다니  
(형, 문들에게 달려들지만 한 대 맞고 쓰러진다.)

동생: 형 괜찮아! 이런 못된 녀석들! 이럴 줄 알고 내가 소림사무술을 연마했지 자  
덤벼라!

(동생, 화가 난다. 황비홍 음악. 동생을 가운데 두고 인상을 쓰며 도는 문들.)  
(동생에게 달려드는 문들. 하지만 동생의 한 동작으로 쓰러지는 문들.)

동생: 자식들! 어디서 까불어!  
(이때, 엑소의 '으르렁'. 호랑이가 등장한다.)

해설2 : 아, 호랑이가 등장했습니다. 동생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서로를 노려보는 동생과 호랑이.)

동생: 니가 우리 엄마를 납치한 호랑이구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할리데이 음악과 함께 서로에게 주먹질을 하는 여동생과 호랑이.)  
(아빨싸, 호랑이 팔이 더 짧다. 호랑이 쓰러진다.)  
(터미네이터 음악. 이번엔 최종보스가 엄마를 데리고 등장한다.)

해설1 : 무시무시한 최종보스가 등장했습니다.

최종보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까부느냐  
동생: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동생, 최종보스에게 달려든다. 갑자기 X파일 음악이 나오고 모두가 정지상태가 된  
다. 최종보스 가볍게 동생의 배를 세 대 치고 지나가면 음악 멈추고 동생, 맞은 곳  
을 아파하며 쓰러진다. 다시 일어서는 동생, 또 최종보스에게 달려들고 역시 X파일  
음악과 함께 또 쓰러진다.)

해설2 : 역시 최종보스입니다. 덩치 크고 싸움 잘하던 동생이 당하고 있습니다.

해설1 :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음악과 함께 지켜보던 엄마와 쓰러져 있던 형, 동생이 합체를 한다.)

해설2 : 트랜스포머?  
(우리편들, 와~ 하며 최종보스를 쓰러뜨린다. 최종보스, 호랑이, 문들 모두 도망간  
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사이좋게 춤을 추는 가족들.)

엄마: 역시 우리 자식들이 최고야  
형: 엄마! 사랑해요  
동생: 저두요!

해설1 :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해설2 : 감사합니다.  
(모두 나와 관객에게 인사를 한다.)

##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인권여행 실시 계획

### □ 목적

1.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체험 활동을 통한 인권 의식 함양
2.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확립

### □ 방침

1.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소속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체험활동을 한다.
2. 행복박람회의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소감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3. 체험활동 전 필요한 안전교육 등의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정 : 2015. 7. 18.(토) 9:00~21:00
2. 대상 : 통합동아리 소속 학생(장애학생 포함)
3. 활동 내용
  - 강연 100℃ 양정숙, 김세진 모자 강연
  - 강연 100℃ 최태성 교사 역사이야기
  - 행복학교 박람회 각종 체험활동
  - 해상케이블카 체험
4. 인솔교사 : 소00
5. 장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광(B,D동)
6. 세부일정

시 간	활동 내용	소요 예산
09:00	학교 집결 및 이동	
11:00	강연 100℃ 양정숙, 김세진 모자 강연	
12:00	중 식	식사비
13:00	강연 100℃ 최태성 교사 역사이야기	
14:00	국궁(내일을 향해 쏘라!) 모형항공기조립 및 조종시뮬레이션	간식비
15:00	나는야 해양 안전 지킴이!(구명조끼, 심폐소생술체험) 자석(거울)버튼 만들기 전동휠체어체험, 협압측정, 체지방 분석	
16:00	해상케이블카 체험	체험비
18:00	저녁식사 후 출발	
21:00	귀가	

### □ 기대효과

1. 동아리 학생들의 명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주제 강연을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 제공
2.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1:1 멘토활동을 통한 통합교육의 효과 제고

##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참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가 오는 7.16(목)~18(토)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국제관 B·D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정책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학교 전시관, 미래의 자녀 진로를 탐색해 보는 상담관 등 우리나라의 유익한 교육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 통합교육동아리 학생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참여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일정 : '15.7.18(토), 09:00~21:00
- 장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BD동
- 프로그램
  - 강연 100℃ 양정숙 김세진 모자 강연
  - 강연 100℃ 최태성 교사 역사이야기
  - 행복학교 박람회 각종 체험활동
  - 해상케이블카 체험
- 행복학교박람회 홈페이지  
[www.2015happyschool.co.kr](http://www.2015happyschool.co.kr)

2015년 7월 16일

○○ 학교장

[붙임2-강연 자료1]

## 강연 100℃ 최태성 교사 역사이야기 자료

최태성 교사의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 이순신장군과 전라좌수영

일 시: 7월18일(토) 13: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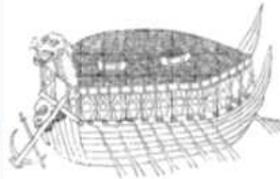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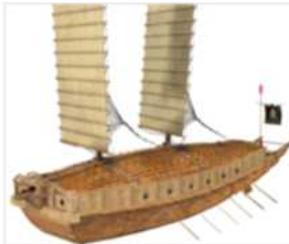
장 소: 메인무대

여수는 이순신장군이 왜적에 맞서 싸우던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자리로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혼과 기상이 서려있는 고장입니다.

KBS '역사저널그날' 등에서 해박한 한국사 지식과 입담으로 우리의 역사를 재미있게 전해온 대광고등학교 최태성 교사가 전하는 '이순신장군과 전라좌수영'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역사의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 |     |                                   |                          |
|-----|-----------------------------------|--------------------------|
| 최태성 | • 대광고등학교 역사 교사                    | • 2001.12 EBS 역사강사       |
|     | • 2011.03 ~ 2012.12 EBS 역사교육 자문위원 | • 2008, 201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
|     | • 2013.03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                          |



전라 좌수영 거북선



[붙임3-강연자료2]

강연 100℃ 양정숙, 김세진 모자 강연 자료

어느 모자의 꿈 이야기

로봇다리 수영선수 세진이와 어머니의 꿈

연 사: 김세진, 양정숙

일 시: 7월18일(토) 11:00~12:00

장 소: 메인무대



새벽에 첫번째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꼴찌로 아이를 데려오면서 여자 혼자 몸으로 딸과 입양아 장애인 아들을 최고로 양육한... 그리고 그 엄마의 노고에 보답해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성장한 세진이의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한 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p><b>김세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살에 5km 달리기 완주</li> <li>• 해발 3870m 로키산맥 등경</li> <li>• 2009년 세계장애인선수권 수영대회 출전,</li> <li>•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li> <li>• 2013년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최연소 입학</li> </ul>	<p><b>양정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세진을 키운 어머니</li> </ul>
---	---



[붙임4-체험활동 안내]

## 행복박람회 체험활동 안내 자료



시간/장소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체험관4
10:00 ~ 12:00	국궁(내일을 향해 싸라) 대전송촌고등학교	모형항공기조립 및 조종시뮬레이션 (전북)강호항공고등학교	배움이 즐거운 수학으로 학교에서 행복해지기 (울산)삼정초등학교	나무열쇠고리 만들기 (경기)연남초등학교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4:00	국궁(내일을 향해 싸라) 대전송촌고등학교	모형항공기조립 및 조종시뮬레이션 (전북)강호항공고등학교	배움이 즐거운 수학으로 학교에서 행복해지기 (울산)삼정초등학교	나야 해양 안전 지킴이 (구명조끼, 심폐소생술 체험) (전남)조도초등학교
14:00 ~ 15:00				
시간/장소	체험관5	체험관6	체험관7	체험관8
10:00 ~ 12:00	희망뱃지, 소망컵만들기, 수학보드게임 (부산)동합중학교	알록달록 캡슐만들기, 천연 손소독제 만들기 대전송촌고등학교	전동휠체어체험, 혈압측정,체지방분석 (강원)원주의료고등학교	원격 레슨 악기 체험교실 - WIFI로 만나는 예술교육 - (세종)조치원중학교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4:00	자석(거울)버튼 만들기 (전남)순천선혜학교	알록달록 캡슐만들기, 천연 손소독제 만들기 대전송촌고등학교	전동휠체어체험, 혈압측정,체지방분석 (강원)원주의료고등학교	원격 레슨 악기 체험교실 - WIFI로 만나는 예술교육 - (세종)조치원중학교
14:00 ~ 15:00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체험활동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 신청서

안녕하십니까?

통합동아리 학생들이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교육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 1. 일정 : 2015. 7. 18.(토) 9:00~21:00
- 2. 장소: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광(B,D동)
- 3. 대상: ○○학교 통합동아리
- 4. 인솔교사: 소○○

.....절.....취.....선.....

행복박람회 참여 희망원

학년-반	학생 성명	연 락 처	비고

위와 같이 역사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보호자 연서로 참여 희망원을 제출합니다.

2015. 7. .

학 생 ( ) 인

보호자 ( ) 인

○ ○ 학 교 장 귀 하

## 장애인권교육 ‘장애인명사초청강의’ 실시 계획

### □ 목적

1. 장애인명사의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
2.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3. 인권존중의 학교·사회 문화 정착

### □ 관련 근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조(차별의 금지)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9(장애학생의 보호)
4.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5.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 방침

1.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강의와 토론식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장애인명사와의 만남과 토론을 통하여 실제적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한다.
3. ‘장애인명사초청강의’는 동아리 담당 교사의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관련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장애인명사초청강의’는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감문을 작성과 수료증 발급을 통하여 장애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시 : 2015. 9. 16.(수) 13:35~15:25
2. 대상 : 희망학생 100여명
3. 내용 : 장애인명사초청강의를 통한 인권의 의미 알기
4. 강사 : 박항승
5. 장소 : ○○학교 시청각실(1층)

### □ 기대효과

1.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인명사와 함께 하는 장애인권 강연을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 제공
2.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

<홍보자료1>

## 장애인명사 초청 강의

### \*장애인명사초청강의 안내\*

주제: 장애인권교육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라'

일시: 2015년 9월 16일 6~7교시

장소: 1층 시청각실

참여신청: 2층 학습도움실

모집인원: 선착순 100명

특전: 장애인권교육수료증 제공  
(교육우 소감문 제출 시)



강사 소개: 박형승, 스노보드 경기도 대표, 코스모폴리탄잡지 '웬만하면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러브스토리, DJ쇼 라디오 스타, 인간극장 '내 연인의 모든 것', KBS 아침마당, 궁금한 이야기 Y 출연, 2018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준비

첨단고등학교 학습도움실



### [ 장애인명사초청강의안내 ]

주제: 장애인권교육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라'  
일시: 2015년 9월 16일 6~7교시  
장소: 1층 시청각실  
참여신청: 2층 학습도움실  
모집인원: 선착순 100명  
특전: 장애인권교육수료증 제공  
(교육우 소감문 제출 시)

### [ 강사 소개 ]

강사: 박형승  
- 성남서중학교 근무  
- 스노보드 경기도 대표  
- 코스모폴리탄잡지  
'웬만하면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러브스토리  
- DJ쇼 라디오 스타 출연  
- 인간극장 '내 연인의 모든 것'  
- kbs 아침마당 출연  
- 궁금한 이야기 Y 출연  
- 2018 평창올림픽 국가대표준비

☞지체장애 스노우보드 선수이자 교사인 박형승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은분은 2층 도움실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선착순입니다^^

첨단고등학교 학습도움실



<서식2>

# 수료증

0학년 0반 0번  
김 0 0

위 학생은 첨단고등학교 특수학급  
에서 진행된 ‘장애인명사초청강의’ 장  
애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였  
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15년 9월 16일

○○학교장

#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계획

## □ 목적

1. 다양한 봉사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실천위주 장애인권교육 강화
2.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하여 삶의 보람 체득
3. 장애인 단순히 나와 다른 특징임을 인정하고 배려와 공감의 문화 형성
4.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

## □ 관련 근거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의 금지)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9(장애학생의 보호)
4.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 방침

1.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교내 봉사활동 발표대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보람된 봉사활동이 되도록 한다.
3.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지역사회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용을 점검하여 학생들이 원활히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정 : 2015. 9. 1.~ 11. 26.
2. 장소 : 광주YMCA광산지회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쌍암공원 내 위치)
3. 대상 : ○○학교 통합동아리 소속 학생
4. 지도교사 : 소○○
5. 연계활동 : 추후 교내 봉사활동 발표대회 연계 추진(생활기록부기재)
6. 협조사항 : 봉사활동 당일 방과 후 교육 및 자율학습 미참여(주 1회)
7. 세부 내용

구 분	요 일	시 간	참 여 학 생	활 동 내 용	누 적 시 간
봉사1팀	화요일	17:30~19:30	최○○, 왕○○, 서○○	청소년수련관 트라이앵글교육 활동 보조	24시간
봉사2팀	목요일	17:30~19:30	이○○, 김○○, 김○○	청소년수련관 트라이앵글교육 활동 보조	24시간

#### □ 기대효과

1.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자발적 나눔 문화 확산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2.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문화 정착
3.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4.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험을 통한 진로 교육

【서식 1】

---

## 「통합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

「○○학교 통합동아리」가 오는 9월 1일~11월 26일(예정)까지 3개월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의 트라이앵글 수업에 참여하는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꿈**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매주 1회 2시간**으로 진행이 되며, 사전교육 및 점검 활동을 통하여 알차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을 위하여 주 1회 방과 후 교육 및 자율학습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성실히 참여하면 추후 **교내 봉사활동 발표대회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교내 봉사활동 대회는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5명(참여인원에 따라 변동)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 여부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은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특기 사항에 참여 내용이 개재가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진로를 위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통합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에 동의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소○○ 010-0000-00000)

2015년 8월 27일

○○학교장

【서식 2】

## 봉사활동 활동 결과 보고서

○○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 봉사활동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내용 : 자신이 올해 활동한 교외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내용만 쓸 것
- 양식의 박스 크기는 본인에 맞게 조절 가능.
- 사진은 자신이 활동한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함
- 분량 : 제한 없음      • 글씨 크기 : 11pt.      • 글씨 서체 : 굴림체

### ★ 봉사 실적 내용 ★

봉사활동 실적	
봉사일시(기간)	
봉사장소	
봉사시간	
봉사종류	
확인서 발급기관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관별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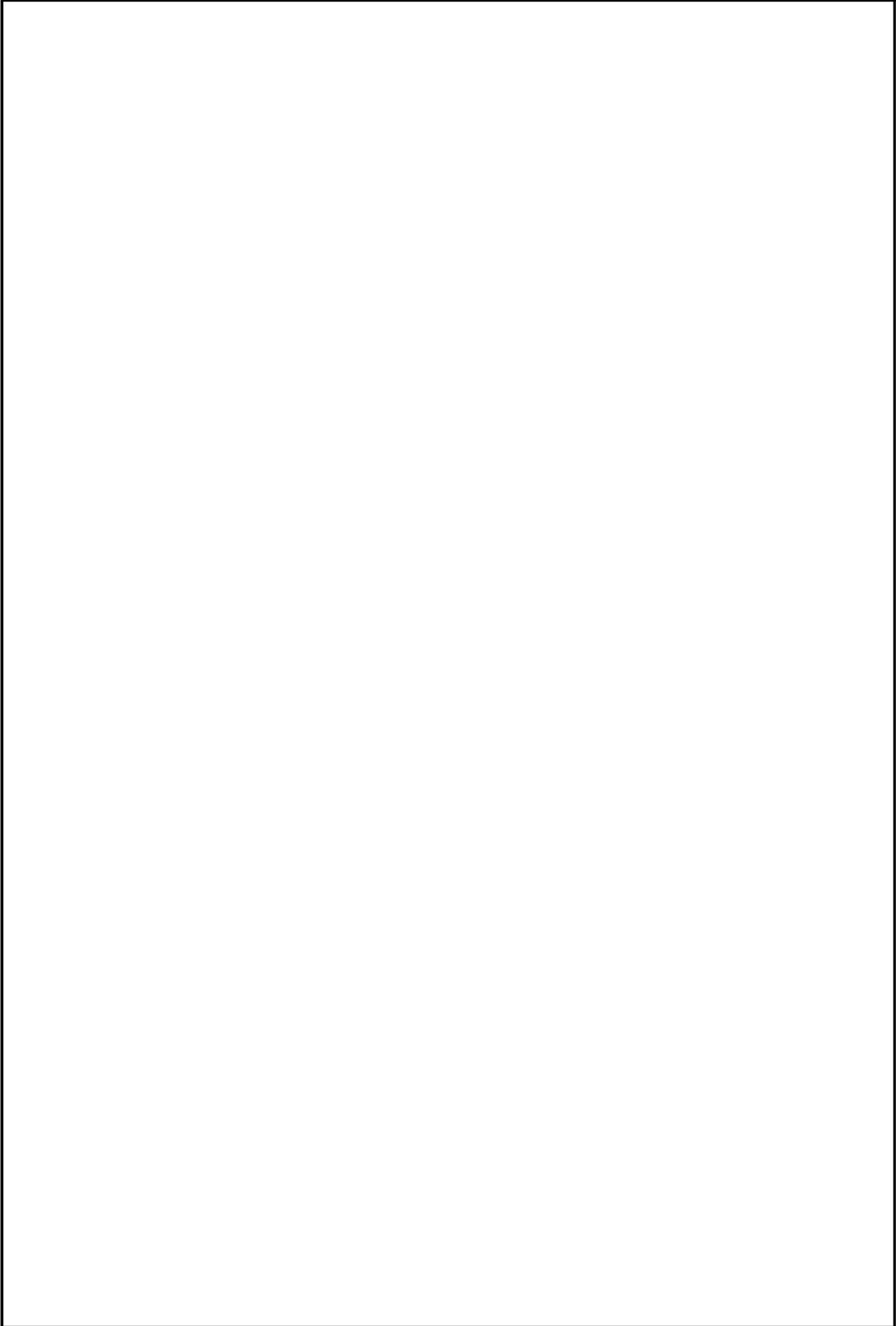
1)봉사 활동 선택 동기

2)봉사 활동 내용 및 활동 사진

활동 사진의 크기는 8cm × 6cm 크기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의 크기는 8cm × 6cm 크기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의 크기는 8cm × 6cm 크기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respondent to write their reflections on the volunteer activity.

지역사회 봉사활동



‘통합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가 신청서

안녕하십니까?

○○학교 통합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 1. 일정 : 2015. 9. 1.~ 11. 26.
- 2. 장소 : 광주YMCA광산지회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쌍암공원 내 위치)
- 3. 대상 : ○○학교 통합동아리
- 4. 지도교사 : 소○○
- 5. 연계활동 : 추후 교내 봉사활동 발표대회 연계 추진(생활기록부기재)
- 6. 협조사항 : 봉사활동 당일 방과 후 교육 및 자율학습 미참여(주 1회)

○ ○ 학 교 장

.....절.....취.....선.....

통합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희망원

학년-반	학생 성명	연 락 처	비고

위와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보호자 연서로 참여 희망원을 제출합니다.

2015. 8. .

학 생 ( ) 인

보호자 ( ) 인

○ ○ 학 교 장 귀 하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자료

안 건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5. 7.

제 안 자 : 학 교 장

1. 심 의 안 건

- 00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2. 제안근거 및 사유

가. 제안근거 : [2015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 계획]

나. 제안사유 : 위 계획안에서 각급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인권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 규정을 두도록 지도하기에 개정을 제안함.

3. 주요 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에 대한 내용 학교규칙에 반영

4. ○○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전문 없음	‘제15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전문신설

## 15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 1. 총칙

**제79조(목적)**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80조(차별행위)** ①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81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2.교육

**제82조(교육)**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 3.폭력(성폭력)

**제84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규정의 개정

제85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789호】에 의거 학교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③ 본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연수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 인권 존증을 위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계획

### □ 목적

1. 민주·인권·평화의 공동체 정신을 통한 5·18 가치를 계승
2.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통한 살아있는 역사교육 실시

### □ 방침

1. 실제적인 현장답사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2. 인권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한다.
3.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이동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시: 2015.5.13.(수) 13:30~16:30
2. 장소: 국립 5·18 민주묘지
3. 대상: 역사동아리, 인권동아리, 희망학생 총 36명
4. 인솔교사: 소○○, 박○○, 배○○
5. 교통편: 전세버스(45인승)
6.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학교 출발»묘지 도착	
14:00~16:00	헌화 및 참배»계기교육(동영상 시청)»묘지 답사»추모관	
16:00~16:30	묘지 출발» 학교도착	

### □ 기대효과

1. 학생들에게 인권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 마련

역사 체험활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참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인권·평화의 공동체 정신을 통한 5·18 가치를 계승하고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자 합니다.

1. 일시: 2015.5.13.(수) 13:30~16:30
2. 장소: 국립 5·18 민주묘지
3. 대상: 역사동아리, 인권동아리, 희망학생 총 36명
4. 인솔교사: 소○○, 박○○, 배○○,
5. 교통편: 전세버스(45인승)
6.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학교 출발≫묘지 도착	
14:00~16:00	헌화 및 참배≫계기교육(동영상 시청)≫묘지 답사≫추모관	
16:00~16:30	묘지 출발≫ 학교도착	

○○ 학교장

.....절.....취.....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희망원

학년-반	학생 성명	연락처	비고

위와 같이 역사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보호자 연서로 참여 희망원을 제출합니다.

2015. 5. .

학 생 ( ) 인

보호자 ( ) 인

○○학교장 귀하

## 지역사회 장애인권 캠페인 실시 계획

### □ 목적

1. 학생들의 주도적인 장애인권 캠페인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권 홍보
2. 장애와 관련된 편견을 줄이고, 배려와 공감을 위한 인식 개선
3.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장애인권 캠페인 활동 실시

### □ 관련 근거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의 금지)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9(장애학생의 보호)
3.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 방침

1.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 캠페인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나 장점 등을 강조한다.
3. 장애인권 캠페인 활동은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4. 장애인권 캠페인은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장애인권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시간(2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 정 : 2015. 10. 14. 13:35~15:25 (지역사회 캠페인)  
2015. 11. 11. 13:35~15:25 (교내 캠페인)
2.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캠퍼스 일대 및 교내
3. 대 상 : 남부대학교 대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 ○○고 학생
4. 지도교사 : 소○○
5. 협조사항 : 남부대학교 장소 및 동아리 담당 교사 협조

6. 장애인권 캠페인 프로그램 내용

구 분	주제	소요 시간	체험 내용	체험 담당 학생
장애인권 프로그램	점자이해	10분 소요	-점자의 이해 및 유래 -읽고 쓰는 방법 -점자의 자음과 모음	왕○○, 서○○, 박○○,
장애체험 프로그램1	점자체험	15분 소요	-점자이름 열쇠고리 만들기	김○○, 김○○, 한○○
장애체험 프로그램2	휠체어 체험	10분 소요	-휠체어 사용방법 안내 -휠체어를 이용한 미션게임	이○○, 김○○, 최○○, 장○○, 정○○

□ 기대효과

1. 장애인권 캠페인 활동을 통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장애인권 의식 신장
2.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문화 정착
3.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장애학생들이 펼치는 연극관람 및 봉사활동실시 계획

### □ 목적

1. 장애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관람하여 장애 인권 의식 고취
2. 원활한 공연관람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장애에 대한 편견 감소
3. 전문연극인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직업탐색 기회 제공

### □ 관련 근거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의 금지)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 방침

1. 단순한 공연관람이 아닌 공연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3. 소감문 작성을 통해 활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다.
4. 공연 관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도록 한다.
5. '거인의 정원' 연극 관람 및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에게 장애인재활협회의 협조를 통해 자원봉사시간(90분)을 부여하도록 한다.
6. 안전한 이동 및 관람을 위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 정 : 2015. 10. 21.(수) 13:00 ~ 17: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한빛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
3. 대 상 : 통합동아리
4. 인솔교사 : 소○○
5. 안전 교육 : 10. 20.(화) 13:00 실시

## 6.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4:00	이 동	비장애학생 개별 버스 이동 장애학생 인솔교사동행
14:00~14:15	기념식	개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등
14:20~14:50	내 마음의 품금	극놀이 동아리팀, 사전영상, 공연
14:50~15:00	초청공연	
15:00~15:30	거인의 정원	문정여고, 사전영상, 공연
15:30~16:00	뒷정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점수부여
16:00~17:00	이 동	비장애학생 개별 버스 이동 장애학생 인솔교사동행

### □ 기대효과

1. 지적장애와 지적장애인 복지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심 유도
2. 장애학생들의 사회참여의식을 고양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3. 장애인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학교 문화 형성

**【붙임 1】**

**(장애인권통합동아리)체험활동 참가 동의 및 안전수칙 이행 동의서**

\* (장애인권통합동아리) 체험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내용을 숙지한 뒤 이행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지정된 시간 약속을 꼭 지키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 나. 단정하고 수수한 복장을 착용한다.
- 다. 담임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지킨다.
- 라. 질서 및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 마. 공공 기물을 훼손하지 않으며 자연을 보호한다.
- 바. 소지품을 잘 보관하여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 용돈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액수가 많은 경우 담임선생님께 맡긴다.)
- 아. 응급한 일은 곧장 담임선생님 및 인솔 선생님들께 알린다.
- 자. 도보로 이동 시 인도를 이용하고 신호등을 잘 지키며 주의를 잘 살핀다.
- 차. 학생으로서 소지해서는 안 될 술, 담배 등은 절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 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개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타. 벼랑, 언덕, 계단 등 위험한 곳에서는 특히 조심한다.
- 파. 모르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 (야구장, 자전거 하이킹처럼 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경우에는) 지도교사로부터 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b>체험활동 참가 및 안전 수칙 이행에 동의합니다.</b>	
<b>2015년    월    일</b>	
<b>(    )학년 (    )반 (    )번 학생 이름</b>	<b>(인)</b>
<b>보호자 성명</b>	<b>(인)</b>

○○학교장 귀하

【붙임 2-공연전단】



2015 연상영극 en-ABLE 극놀이학교

# 거인의 정원

초대합니다

연극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신인연극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문정여자고등학교

---



2015 연상영극 en-ABLE 극놀이학교  
'en-ABLE'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에 갇혀있는 자신을 이겨내고 새롭게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

2015 연상영극 en-ABLE 극놀이학교  
“극놀이 학교”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녹여낸  
창작극과 뮤지컬로 지금 안고있는  
고민과 꿈을 함께 펼쳐 보일 것 입니다.

”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한빛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



신인연극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T. 062 368 6676 F. 062 368 6678 E. 3686676@hanmail.net

DRAMATIC PLAY SCHOOL

2015 연상영극 en-ABLE 극놀이학교

## ‘거인의 정원’

OPEN 2015. 10. 21. WED 2:00~3:30PM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한빛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

**연극 공연일정**

13:30~13:50	접수/자리착석
14:00~14:20 (20')	기념식(이지훈)
14:20~14:50 (30')	뮤지컬 '내마음의 풍금' (동아리팀)
14:50~15:00 (10')	초청공연
15:00~15:30 (30')	연극 '거인의 정원' (문정여고)

##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제강제동원 현장답사 계획

### □ 목적

1. 일제강점기 역사현장 답사를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
2. 실제적인 체험학습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 □ 방침

1. 실제적인 현장답사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2. 인권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한다.
3.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이동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한다.

### □ 세부추진 내용

1. 일시: 2015.10.25.(일) 8:30~18:00
2. 답사지역: 여수 일대
3. 참가학생: 역사동아리 및 통합인권동아리
4. 인솔교사: 배○○, 소○○
5. 답사주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6. 안내강사: 주철희  
-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하다' 저자  
- 순천대 지리산문화원 센터장

### □ 기대효과

1. 학생들에게 인권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 마련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제강제동원 현장답사-안내자료1]

## 여수 일대 (2015. 10. 25)

### 1. 답사 진행 일정표

시 간	장 소	현재 지명	참고
08:30 ~	집결 -광주시청 앞		인원점검,차량 탑승
10:30 ~	신월동 수상비행장	신월동 한화	
11:30 ~	넘너리 동굴	동성자동차학원	
12:00 ~	점심 식사 ( 인근 식당)		
13:00 ~	오동도 방파제	오동도방파제	
13:40 ~	여수신항	엑스포부지	
14:30 ~	여수요새부대	여수중학교	
15:30 ~	마래터널	마래터널	
16:00 ~	광주로 출발		※18:00경 광주 도착

### 2. 여수 지역 답사지 소개

직종	작업장명	소재지	설립일/생산품목/연혁/ 군부대번호/기타	최종 기업	전범 기업
비행장	비행장(해군수상)	월호, 주삼동	현재 한화에너지 부지 앞		
채석장	채석작업장	돌산면	여수항만 공사에 사용		
하역수송	항만하역작업장/조선 운송(주)	여수항	*여관연락선(여수-시모노세키간 연락 선)의 출발항으로서 의미도 있음	조선운송(주)	전범 기업
기타토건	터널공사장(마래)/조 선운송(주)	여수읍덕총리	[신고내용]여수신항소재,마루보시철 도국소속,마래산터널작업장	조선운송(주) [발주]	
항만	항만공사장(여수항)		항만공사: 공사기간1935~1942년 [신고내용]오동도방파제건설		
군부대	여수요새사령부		현재 여수중학교 자리/여수수상비행 장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여수시내에 숨겨진 일제강점기의 현장을 찾아

### 1. 여수항공기지(202부대)

여수항공기지는 여수시 신월동 구봉산 자락에 있다.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항공기지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 시설로는 활주로, 격납고, 무기고, 탄약고, 연료창고 등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수항공기지는 여수수상비행장 또는 여수해군비행장으로 지역주민들은 부른다. 기록에 따르면 정식명칭은 여수항공기지이며, 해군 202부대였다.

### 2. 활주로(활주대, 활대)

활주로는 신월리 가막만에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여수항공기지 건설 당시 활주로는 항공기지의 유도도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월동과 웅천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활주로 일부가 매립되어 현재와 같이 항공기지와 활주로가 분리되었다. 즉, 도로 밑에도 활주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활주로는 콘크리트 바둑판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가로 140cm, 세로 95cm, 높이 145cm의 콘크리트 블록을 하나씩 조립하여 이어 붙여 만들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규모는 210m×100m 1기로 해수면을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 3. 넘너리 철도굴

일제는 여수 북쪽에 위치한 미평역에서 신월리의 여수항공기지를 연결하는 4km 철도 부설을 계획하였다. 이 철도 노선을 ‘신월리선’이라고 하였다. 기록상으로 미평역에서 신월리까지 4km라고 했지만, 위성지도에서 측정한 길이는 7km 정도였다. 신월리선의 건설 목적은 군수품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철도였다.



### 4. 고소대와 오포대

고소대는 전라좌수영 성체의 치서우이에 세운 포루의 일종으로서 장대로 사용되던 걸물이다. 현재 고소대는 이순신 장군의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좌수영대첩비’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지 5년 후인 1603년에 부하들이 장군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타루비’와 좌수영대첩비를 세우게 된 내력을 적은 ‘동령소갈비’가 안치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황이 확대되면서 여수요새사령부를 설치한 이후 이곳 고소대는 고사포진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 흔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자산공원의 고사포 진지가 동남 방향(남해 바다)과 북서 방향(여수 시내)을 향하게 두 곳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곳 고소대도 여수 시가지를 방공하기 위해 고사포 진지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군사기지 측면에서 오포대를 살펴보자. 「본토지상방공부대배치요도」에 의하면, 여수요새사령보에는 조공등(서치라이트) 1개가 중대를 함께 배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공등은 적기가 밤에 기습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공중에 비추어 보는 불빛이다. 일반적으로 탐조등이라고 많이 일컫는다. 따라서 조공등 중대는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하며, 사방을 빙빙 돌면서 비출 수 있어야 한다. 여수 시내 어느 곳을 보아도 그런 곳은 딱 한 군데뿐이다. 바로 현재 오포대라고 부른 이곳이다.

## 5. 해군지하사령부(병커)

지하병커는 타원형 형태로 두 개의 입구가 있었다. 입구와 입구사이는 40m 정도 간격이었다. 굴의 입구는 폭 2m에 높이가 2m 50cm였다. 굴 내부는 측정할 수 없었으나 대략 폭이 3m 정도는 되어 보였다. 여수항공기지 격납고 시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웬만한 폭탄 공격에도 끄덕없을 정도이다.

여수 농업기술센터 입구의 방공호로 알려진 곳은 전신소를 지하에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 전신소가 해군지하사령부의 통신을 담당했던 시설로 이완희는 보고 있다. 전신소 건물 역시 견고한 콘크리트로 구축되어 있다. 지상에는 굴뚝 형태의 구조물이 6개나 있다. 이 구조물 안을 들여다보면 지하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안테나를 지상으로 올리기 위한 통로로 보인다.



